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etoday.co.kr

제3077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코인원 '위믹스' 기습 재상장 논란 4

삼성, 공기정화 필터 '초격차' 9





코스피(16일) 2475.48(+47.58P) 코스닥 784.71(+19.25P)
환율(달러당 원화) 1284.80(+2.6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504%(+0.002%P)

檢, 이재명 구속영장… "정경유착 토착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 최초

"李,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리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성남FC 관련

녹음파일·문건 등 물적증거 충분"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처음인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고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녹음파일과 성남시의 각종 지시 보고 결재 문건, 이외에도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일치되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세력이 유착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로, 범죄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고 취득한 수익이 막대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법무부-대통령 재가 순서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국회는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 보고 시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되고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수진 기자 abc123@

노동조합 10곳 중 4곳 회계장부 표지만 냈다

327곳 중 120곳만 정상 제출

자료 일절 내지 않은 노조 54곳

고용부 "위반사항 발견 땐 과태료"

한노총 "장관 직권남용 책임 묻고 ILO 제소 등 민노총과 공동투쟁"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대다수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이번 점검에서 해산신고 노조(7곳, 2.1%)를 제외한 327곳 중 120곳(36.7%)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다. 54곳(16.5%)은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56곳(46.8%)은 자료를 일부만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은 각각 38.7%, 24.6%에 머물렀다. 조직형태별로 기업별 노조 등(46.2%)의 제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는 제출률이 20.3%에 불과했다.

노동계의 비협조는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7일 산하 노조에 내린 공문에서 △비치 대상 항목은 사진 및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 대상 항목은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 민감한 내부정보는 제출하지 않음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즉각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재정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문 발송 당시 고용부는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도 이 장관은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점검 결과 발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조 때리기'를 이어간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부당한 행정 개입에 불응하고,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묻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하는 등 공동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바이든, 尹대통령 초청"… 12년 만에 국빈방문 기대감

블룸버그 "백악관 만찬 준비중"

대통령실 "美 공식입장 아니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12년 만에 국빈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확실히 부인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4월쯤 윤 대통령을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16일 입장문을 내 "모 매체에서 보도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청 준비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은 점, 애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3~4월 즈음 윤 대통령의 방미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국빈 방문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청국인 미국이 침묵을 지키는 까닭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대응)'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수준 예우로 정상회담은 물론 의장대 사열·공식 환영식·예포 발사·국빈 만찬·고위급 환영 및 환송식 등 일정이 이뤄진다. 특히 의회 연설이 진행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이 추진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 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초청하는 국빈이 된다. 국빈 방문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안보 문제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회담 조율을 위해 1~4일 방미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힘을 주고 있는 우주개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2일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급망 협력의 경우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IRA 세부규정은 3월에 발표된다. 김윤호 기자 uknow@

국세청 '경영권 분쟁' SM 세무조사 검토

국세청이 경영권 싸움 과정에서 불거진 이수만 전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4면

1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SM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세정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당연히 SM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미 SM에 대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SM에서는 경영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수만 전 총괄이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넘겨 주기로 하자 현 SM 공동대표인 이성수 씨가 이 전 총괄의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수 대표는 이날 "이수만은 해외판 라이크기획 CTP(시티 플래닝 리미티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만은 2019년 홍콩에 CPT라는 회사를 자본금 100만 달러(약 12억8670만 원)로 설립했다. 100% 이수만 개인회사로 해외판 라이크 기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이투데이 공채 17기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김진우 문현호 임유진 전아현 정상원
정유정 지경훈 최수빈(이상 8명)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No Landing: 경기상승 지속〉

비싸도 사재는 '노 랜딩' 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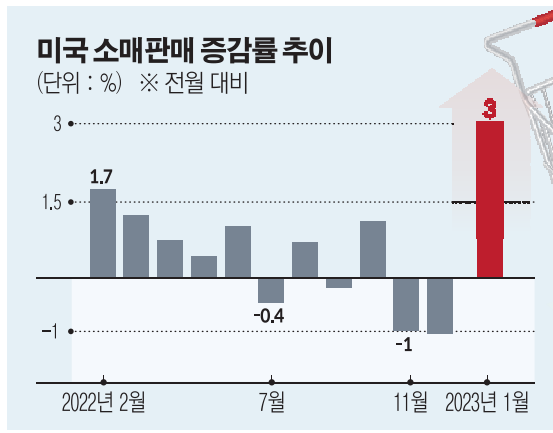
G2소비 '극과 극'

사래도 안사는 '노 바잉' 中

〈No Buying: 소비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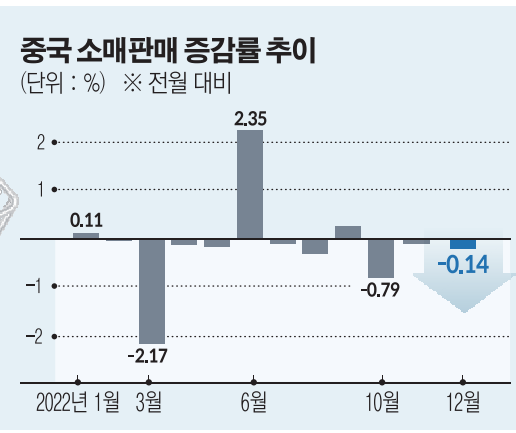
미국 '고금리·고물가' 속앓이

고용호조·소매판매 견고한 증가
연준 '인플레 장기화 될라' 고심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





※출처 :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중국 '내수악화·돈맥경화' 골머리

리오프닝發 소비회복 기대 실종
지원금·보조금 지급 없던 탓에
주택판매 19개월째 '내리막길'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내수 사정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미국 경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예상 밖 선전을 이어가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민이 깊어진 반면, 중국은 당국의 내수 진작에도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망치(1.8%)를 훌쩍 넘는 것이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1.1%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고, 2021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봐도 전 품목에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 5.9% 증가하며 전체 소매판매 강세를 견인했다. 온라인 소매판매는 1.3% 반등했고, 가구와 가전도 각각 4.4%. 3.5%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백화점 매출은 17.5% 급증해 연말 연휴 쇼핑 시즌이 아님에도 '깜짝 실적'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1월 소매판매 증가세가 경제 성장 회복과 견고한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물가가 올랐지만, 고용시장 호조와 임금 상승세가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달에만 신규 일자리가 51만7000개 생겼고,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할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 보니 임금이 오르게 돼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좋아졌고, 미국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늘면서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지난달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0% 증가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국면에서 벗어났다.

연초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문가들도 줄줄이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당장 경기 침체가 없다는 관측에도 힘을 실었다.

다만 물가를 잡겠다고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왔던 연준으로서는 미국 경제의 예상 밖 '선전'에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금리 인상에도 고용 악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상황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물가를 제대로 잡기 위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고금리에도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위축됐던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날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공개된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 연설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올해 중국 내수 회복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를 반등시킬 수단 중 하나로 내수 확대를 꼽으면서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 배려를 통해 사회 전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중국은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터라 경기 불쏘시개가 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기록적으로 불어난 저축액의 상당 부분이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소비로 흘러 들어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아직 소비 개선 조짐은 크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1월 신차 판매는 전년 대비 37.9% 급감했고, 주택 판매는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0.14% 감소했다. 1월 소매판매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키울 것"

〈고용노동부 장관〉

'관훈클럽 토론회'서 입장 밝혀
"실력행사 의존한 노사관계 우려"
사회적 갈등조장…재논의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며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BERRY ENTERTAINMENT & MEDIA
(주)베리미디어

GTV 여성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것
UHD DreamTV 보다 선명하게! 실감나게! 이제는 UHD로 본다
CookTV 단골 되고 싶은 맛있는 TV!
GMTV 듣는 즐거움에 품격을 더하다
생활체육TV 활력 라이프의 시작, 생활 스포츠의 모든 것
BallTV 볼수록 빠져드는 구기 스포츠 전문 채널

베리미디어는
급변하는 미디어 세상을 선도합니다
미디어환경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최상의 즐거움과 신선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하는 기업

주파수 경매로 수조원 걷는 정부… 소비자 부담으로

❶ 통신비 부담 기업에 떠넘기나

이통3사 5G 주파수 가격 3.6조
3.4㎓·LTE 등 비용까지 더해
주파수 경매 통신비 인하 걸림돌
정부 새 요금 주문에 업계 혼란

정부가 서민 생활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통신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물가 안정 대책엔 통신비 대책이 대거 담겼다. 일각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가 자체 통신비 인하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로 수조 원대의 세수를 챙기는 행태가 통신비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한시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금제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이 없는 40~100GB 내 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요금제 다양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요금제를 출시하게 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 통신비 문제는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수년 전에도 민간기업에서 통신비 인하를 할 경우 전파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단통법, 알뜰폰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현재 이통사에서는 5G와 LTE 주파수 대역에 대해 별도로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5G 주파수 이용 가격은 이통3사 합쳐 3조6183억 원에 이른다. 이통사가 매년 납부하고 있는 5G 주파수 이용 가격은 약 3000억 원가량이다. 여기에 3.4㎓·LTE 등 대역이 다른 주파수 할당 비용까지 합치면 이통 3사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파수 비용으로 정부에 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의 보유량이 다르고, 또 할당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추정치를 낼 수는 있다"며 "과거 LTE 주파수 재할당 당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이전에 비해 할당대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산업 외적으로 업계 생태계에 선순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통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55%)과 정보통신진흥기금(45%)으로 나눠 배분된다. 이는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소외계층 미디어 지원, 공공성 확보, 방송 콘텐츠 진흥 목적 등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 생태계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익적인 성격으로 자금이 선순환되는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요금이라는 현상만 보고 규제하려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경매를 통해 이미 확정된 만큼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주파수 경매 당시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최저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 가격이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통사가 분기별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주파수 가격이 못 미치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매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법률상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성준 기자 tiatio@

5G 주파수 경매 당시 이통 3사별 결과
(단위: 원, 2018년 기준)

구분		SK telecom	kt	LG U+	대역별 총액
3.5㎓ 대역	세부 대역	3.60~3.70㎓ (우)	3.50~3.60㎓ (중)	3.42~3.50㎓ (좌)	2조9960억
	낙찰가	1조2185억 1단계: 9680 2단계: 2505	9680억 1단계: 9680 2단계: –	8095억 1단계: 7744 2단계: 351	1단계: 2조7104억 2단계: 2856억
28㎓ 대역	세부 대역	28.1~28.9㎓ (우)	26.5~27.3㎓ (좌)	27.3~28.1㎓ (중)	6223억
	낙찰가	2073억 1단계: 2072 2단계: 1	2078억 1단계: 2072 2단계: 6	2072억 1단계: 2072 2단계: –	1단계: 6216억 2단계: 7억
총계		1조4258억	1조1758억	1조167억	3조6183억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망 구축 쉽지 않은데…
제4이통사 탄생 가시밭길

정부, 통신3사 과점 깬다
KT·LG유플러스 회수 대역 할당
자금력 있는 대기업들은 시큰둥
중견기업은 설치비 감당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통신시장의 과점 폐해를 언급하며 경쟁시스템 강화를 예고했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야 통신비 문제가 해소돼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제4 이통사 설립을 놓고 갖가지 전망이 오가고 있다. 우선 기존 이통3사조차 수십 년간의 시간과 수 조 원대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전국망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했다. 수차례 논의됐던 제4이통사 계획은 참여 기업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심사기준을 넘지 못하는 등 고비 때마다 무산돼 왔다. 이통3사가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를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해 제4이통사 출범을 꾀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기존 이통사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자급제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단말기·장비 공동구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망구축·사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28㎓ 대역을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 기회가 열렸지만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통신사업에 진출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통신사업에 진출해있거나, 이 서비스에 관심이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제4이통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른 기업들이 저마다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서비스 진출을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제4이통사 설립에 눈독을 들이는 곳은 중견·중소기업으로 압축하고 있다. 하지만 수조 원대에 달하는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할 수는 있지만, 시장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요인은 3년차까지 전국에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론 10% 이행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이통사조차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신규사업자가 단기간에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에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이 아직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에 과연 어떤 기업이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가결땐 "폭거" 부결땐 "방탄"… '이재명 체포동의안' 어디로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구속 기로

李 "검사독재 정권이 법치주의 무너뜨려"
24일 본회의 앞두고 '민주당 결집' 노려
與, 野 이탈표 겨냥 "양심 버리지 말아야"



이재명 대표 주요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 직무상 비밀을 이용 민간업자에 7886억원 이익 몰아줌 (이해충돌방지법위반) – 성남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배임)
위례 개발 특혜 의혹	– 민간업자에 211억원 이익 취득케 함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 인허가 등으로 기업들에게 133.5억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 – 기부받은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원인 등을 가장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있는 '검사선서' 액자 앞을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정적을 제거하려는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정국'이 열리면서 여야 대치도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당 지도부는 오후 2시 예정된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을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대표는 총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마쳤고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면서 국면 전환에 나서려고 했다. 또 김종민·이원욱·전해철·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로 만나면서 당내 결집도 노렸다.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30명 안팎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의원 다수는 숨죽인 채 여론 분위기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의원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더 뭉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압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 표결'을 말하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지키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檢 150쪽 영장 속 李 죗값 계산하니…"배임 4895억·뇌물 133억"

직위 이용 대장동 수익 업자에 몰아줘
성남FC에 뇌물공여 요구 등 5개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5가지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집중한 혐의는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70%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제시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낮춰 공사에 적은 금액만 배당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 부패방지법위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총 150쪽 분량에 달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챙겨야 할 이익이 있는데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이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이 보는 배임 규모는 4895억 원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의 70%를 다 받게 했으면 총이익은 6725억 원인데,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조정해 1830억 원만 받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계산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모지침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뒤 배당이익 산정을 위해 내부 보고 과정에서 검토한 다른 개발 사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업자와)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로 진행을 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배임액을 그렇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업자에게는 211억 원의 이익을 취득(부패방지법 위반)하게 했다고 봤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인허가 등으로 기업들에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특가법 위반), 이를 기부받은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공정위 '조사관리관' 신설… '경제검찰' 역할 강화

조사-정책 완전분리… 책임·전문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 및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작년 8월·올해 1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한다. 부서 분리를 통해 조사 부서가 사건 처리에 전념하고, 부서별 조직원의 신속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정책·조사 기능 혼재)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1급)은 정책 기능을 맡고, 같은 1급인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관리관이 조사 기능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 사건절차규칙, 조사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무처장이 조사관리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에 비중을 더 둘 방침이다.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 한 자리를 줄인다. 공정위 전체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사-정책 부서 분리 작업은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도 한층 강화된다. 조사 직원이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제한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코인원, 위믹스 '기습상장'에… 슥 떨어진 '닥사'

내부 논의 없이 재상장… 협의체 무용론 부상

코인원이 16일 위믹스의 원화 거래를 재개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를 종료한 이후 2개월 만이다. 협의체 내부와 논의되지 않은 '기습 상장'에 업계는 당황했고, 자율 규제를 강조하던 닥사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위믹스 거래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코인원 측은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 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상장 이유를 밝혔다.

이번 상장은 닥사 및 다른 거래소와 논의되지 않은 코인원의 단독 결정으로 확인됐다. 닥사는 물론, 지난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함께했던 업비트·빗썸·코빗 모두 상장 여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상장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거래소 모두 향후 위믹스 거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지원 최종 결정은 각 거래소에 있다"며 "재상장과 관련해서는 코멘트가 어렵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재상장과 관련해 아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다"며 "상장 관련해서는 관련 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코빗 관계자는 "아직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일지 WEMIX

2022년	10월 27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위믹스 투자 유의종목 지정
	11월 24일	닥사,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11월 30일	위메이드, 법원에 4대 거래소 대상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12월 8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2023년	2월 16일	코인원, 위믹스 재상장 발표

코인원의 이번 상장은 시장 질서 명분보다는 거래량 증가라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크립토 윈터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돌파구 중 하나로 위믹스를 상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장으로 닥사가 강조하던 자율규제 명분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닥사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며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법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의 한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닥사가 상장 폐지를 결정할 당시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의 재상장 조치를 닥사 결정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재상장을 했다는 것은 협의체 내에서 페널티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연대·포용·탕평〉

金 "연포탕 정치로 총선 압승" 安 "당대표 대권 발판 아냐"

與 전대 호남권 합동연설회

黃 "호남이 국가 미래비전 핵 돼야"
千 "호남 핵심 삼아 전국선거 승리"
광주쇼핑몰·호남비례 등 맞춤공약



황교안(왼쪽부터)·천하람·안철수·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보수의 불모지' 광주에서 열렸다. 당 대표 후보들은 16일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호남 지역 발전 정책을 실천하고 호남 출신 공천을 공약했다.

제일 먼저 연설한 황교안 후보는 "호남은 이제 국가 미래 비전의 핵이 돼야 한다"며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공천해서 호남에서도 기운이 돌 수 있게 하겠다. 호남의 한을 풀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어 △상생형 광주복합쇼핑몰 △새만금 메가시티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등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호남에서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천 후보는 "보수 이념과 가치가 호남에서도 구현되도록, 우리는 당 선자를 내는 정치를 해야 된다"며 "민주당이 호남, 전라도당이라고 하면서 매번 경상도 출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내서 이기기 위해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호남을 핵심지역으로 삼아 전국선거를 이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의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더 싸울 수 있도록 이번에 한 번만 힘을 실어달라"며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도전이 천하람 혼자의 도전이 아니라 세력으로 모아져 더욱 거세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언급하며 '헌신'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 대표직을 대권 발판으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총선에 승리하면, 바로 당 대표직 내려놓겠다. 제 꿈은 오직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 국민의 행복뿐"이라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받는 "대권 욕심 있는 당 대표는 곤란하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날 김기현 후보를 집중 저격했다. 그는 15일 TV 토론회에서 거론된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문제 삼으며 "당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지지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했다"며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를 내걸고 호남과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탕평을 통해서 연포탕 잘 끓여서 국민대통합, 당내 대통합을 이뤄서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고 약속한 저 김기현이 연포탕의 고향에 왔다"고 인사했다. 김 후보는 호남지역 현안을 조명했다. 그는 "일회성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대통합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줄 세우기 학력평가 그만" '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관심法

정부·교육계 '절대평가' 도입 공감
"변별력 약해져 입시 혼란" 우려도

학업 성과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상대평가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미 완성한 상태로,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법안은 큰 틀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중 교과 평가나 입시 관련 부분에서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석차나 표준편차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교육과정에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강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방에 있는 43개 고교는 내신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며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경쟁교육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교육계에서도 절대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9등급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하며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땠다. 이후 진보적 교육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논평에서 "절대평가제로의 전환은 분명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꾸린 것이 대표적이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2025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성취평가와 9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1학년 공통과목을 일종의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면 전환할지 등을 논의해 정할 계획이다.

절대평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학교에서 내신 관리를 위해 높은 점수를 남발하면서 변별력이 약해져 입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내신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교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명문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尹정부 첫 '국방백서' 발간 6년 만에 다시 "북한은 적"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방백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김정은'으로 바뀌 직책을 뺐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추경호 경제부총리〉

秋 "반도체 수출 감소 심화… 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비상경제회의 겸 수출대책회의

"국회 조특법 개정안 처리 시급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
농수산식품 수출 총력 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무역적자(126억9000만 달러)의 94.9%는 에너지 수입(54.9%), 반도체 경기(19.8%), 중국 요인(반도체 제외, 20.3%) 등에서 기인했다.

그는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 부총리는 또한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수산식품 수출 동향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면서도 "농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올해 1월에도 전년 대비 10% 이상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도 "정부는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물가 안정 위해 배추·양파 할인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17일부터 19일까지 농가 돕기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파를 할인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할인 판매하는 배추와 양파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강 저탄소화' 1500억 펀드 조성

연료원 R&D 2400억 투입
철스크랩, 폐기물 제외 협의
수소유동환원로 대체 계획

저탄소 철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또 저탄소 연료원,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4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회의 참석 7개 기업은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한 민간펀드 1500억 원 조성이 골자다. 지난해 6월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가 소진되면 추가로 1500억 원의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를 3월까지 구성해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성과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철강산업 발전전략도 내놨다.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철스크랩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는 등 순환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100만 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겠단 목표다. 또 203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해 저탄소 연료원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 사업도 벌인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경제가뭄 속 단비"… 정부 '新중동 붐' 힘 싣는다

MOU 성과 구체화·맞춤 지원
내달 고위 협력단 UAE에 파견

정부가 새로운 '중동 붐' 조성을 본격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맺은 업무협약(MOU) 성과를 구체화하고 부처별 맞춤 지원에 나섰다. 다음 달엔 정부 고위급을 단장으로 구성한 협력단을 UAE에 파견할 예정이다.

16일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관계기관, 민간 기업과 함께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민관추진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와 맺은 MOU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각 부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기업과 관계기관은 정부와 협력해 업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 장관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290억 달러, UAE 61억 달러 등 350억 달러를 넘는 58건의 B2B MOU와 계약 등을 확보했다"며 "UAE로부터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확약받은 건 오랜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장관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신(新) 중동 붐'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 관계기관, 관련 기업이 원팀 정신으로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업이 제시한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부처들은 상대국 부처와 개별 협력 채널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엔 중동 현지에서 분야별로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고위급을 단장으로 하는 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UAE에 파견한다.

관계기관들은 각종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전담팀을 신설해 컨설팅과 지사화를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조건부 사전 금융 제공과 수주 후 이행성보증 발급 등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출입은행도 대출을 제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애로, 건의 사항을 정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ooon@

"그린바이오, 5년 내 10조로 키운다"

농식품부, 육성 전략 발표
1000억 펀드·6대 허브 구축

정부가 농업의 미래 성장 열쇠로 꼽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 로드맵을 내놨다. 2027년까지 산업 규모는 10조 원, 수출은 5조 원까지 늘리고 세계적 유니콘 기업 15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6대 분야 그린바이오 허브를 구축해 기업을 지원한다. 원료 작물 전용 첨단 농장과 소재생산 및 실증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도 만든다. 특히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 구매제를 도입해 수요도 책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이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조2000억 달러(약 1542조 원)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지만 국내 시장은 5조4000억 원에 불과, 세계 시장 대비 0.3%로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을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으로 키우고 세계적 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종자, 미생물,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소재 분야 거점인 그린바이오 허브(가칭)를 조성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신생기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해 창업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도 돕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배합사룟값 추가 인하… 한우 농가 月 73억 절감

한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가격 추가 인하 조치가 추진된다. 농협사료 가격 인하에 국제곡물 가격도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사료 업계에서도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안정세 등에 따라 배합사료 업계가 가격을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농협사료는 이달 10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25kg당 625원을 인하한다. 앞서 농협사료는 지난해 12월에도 25kg 한 포대 가격을 500원 내렸다.

한우농가의 농·축협 사료 구매 비중은 지난해 기준 62.1%에 달한다. 이번 가격 인하 조치에 따라 이들 한우농가는 월 73억 원의 사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다른 사료업체들도 사료가격 인하에 동참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번 농·축협 사료가격 추가 인하의 영향 등으로 다음 주부터 전 축종 사료를 kg당 20원 정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곡물 가격의 하락도 사료 가격 인하에 영향을 끼쳤다. 국제 사료곡물 가격은 지난해 7월 고점(도입월 기준)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와 대두박의 가격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5가지 서비스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튼튼탄
고객케어

특별한 케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자산 관리

쉽고 빠른 청구
보험금 청구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

빈틈없는 보장
꼭 필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점검

유용한 보험
보험료 할인부터 플라자 예약까지
편리한 보험 생활의 시작

쏠쏠한 혜택
건강과 생활까지
챙기는 혜택



1588-3114

삼성생명 홈페이지/모바일앱 「튼든탄 고객케어」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준법감시필 22-1981(브랜드광고파트, 2022.9.27~2023.9.26)

ASML "中 직원이 기밀 빼돌렸다"… 반도체 갈등 격화

연례실적 보고 발표와 함께 고발
2021년 中업체서 IP 도둑맞기도
네덜란드·美 손잡고 중국 상대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협력하자
中, WTO에 제소하며 긴장 고조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뭉친 가운데, 네덜란드 대표 반도체 기업 ASML이 중국인인 전직 직원의 기술 도용 혐의를 고발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ASML은 연례 실적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인 전직 직원이 회사 독점 기술과 관련한 데이터를 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SML은 "도용 혐의가 회사 사업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어 해당 사건을 관계 당국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ASML은 이후 대변인 명의의 별도 성명에서도 중국을 가리켜 "반도체 산업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랜섬웨어와 피싱 공격으로 IP를 얻거나 사업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등 보안을 위협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리셰 스레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 장관은 브리핑에서 "ASML이 사건을 알려왔고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ASML과 같이 평판 좋은 대기업이 산업 스파이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네덜란드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ASML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도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벌어진 유출은 하드웨어가 아닌 기술 데이터와 관련 있다"며 "데이터는 최신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시스템 내 저장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일은 지난 몇 달에 걸쳐 남성 직원에 의해 벌어졌고 해당 사실은 미국에도 통보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기술 도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SML은 2021년에도 동팡징위안이라는 중국 업체가 자사 지식재산(IP) 권리를 훔쳐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엔 실리콘밸리에 있는 'Xtal'이라는 중국 업체도 관여됐다고 밝혔다.

당시 ASML 변호인단은 "동팡징위안과 Xtal은 본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며, ASML 기술을 획득해 중국으로 옮기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동팡징위안과 Xtal 직원은 기술 도용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사건은 네덜란드가 미국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협력하고 중국이 관련 제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반도체 업계 갈등이 심화한 상태에서 발생해 주목받는다.

앞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네덜란드와 일본에 제시했다. 3국은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블룸버그는 "고위급 관리들이 워싱턴D.C.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고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네덜란드와 일본 관계자들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있고 신흥기술의 안전과 보안이 분명히 의제에 포함돼 있다"며 동참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블룸버그는 "지정학적 긴장은 중국 정찰풍선이 격추되기 전부터 이미 고조됐다"며 "이번 사건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중국과 관련해 벌어진 두 번째 위반 혐의로, 긴장감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온난화에 '둠스데이 빙하' 마저 위기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를 연구 중인 과학자들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15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빙하 아랫부분이 특이한 모양으로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주 크기의 스웨이츠 빙하는 녹아 내릴 경우 해수면을 재앙적인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 '둠스데이(최후의 심판일)' 빙하라고 불린다. 연구진은 빙하 바닥에 깊은 균열이 있고 계단 모양의 특이한 모습이 관측된다며 해당 부분에서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이츠 빙하에서 해양으로 녹아 들어가는 얼음이 매년 수십억 톤에 달한다. 남극/로이터연합뉴스

SEC, 가상자산 옥죄는데 코인시장 들썩이는 까닭은

'제3자 관리인' 자산군 포함돼
운용부담 우려에도 가격 폭등
업계 "최악의 상황 가격 선반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주식이 강세를 나타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SEC는 헤지펀드·연기금 등 투자자문사(RIA)들이 '자격을 갖춘' 자산 관리인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자산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4대 1로 의결했다. 즉 가상자산도 전통 금융자산처럼 제3의 자산관리인을 통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은 금융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제3자' 금융사를 활용해 고객 자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고용된 '제3자' 금융사는 기관투자자들이 맡긴 고객 자산과 자사 보유 자산을 개별 관리해야 한다. 자산관리인에 재정적 문제가 발생해도 고객 자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제까지 전통 금융자산의 경우 SEC에 등록된 시중은행이나 신탁은행, 선물중개업체 등이 '제 3자' 자산 관리인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유가증권으로 취급받지 못하면서 SEC의 현행 규정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SEC는 이번 규제안에서 고객 자산 '개별 관리' 대상 자산을 '고객의 모든 자산'으로 명문화해 가상자산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SEC는 이번에 의결된 규제안을 2개월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안이 발효되면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SEC의 규제안 발표에도 가상자산은 물론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였다. 가상자산 관리업체 아르카의 제프 도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미국의 모든 규제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격에 반영됐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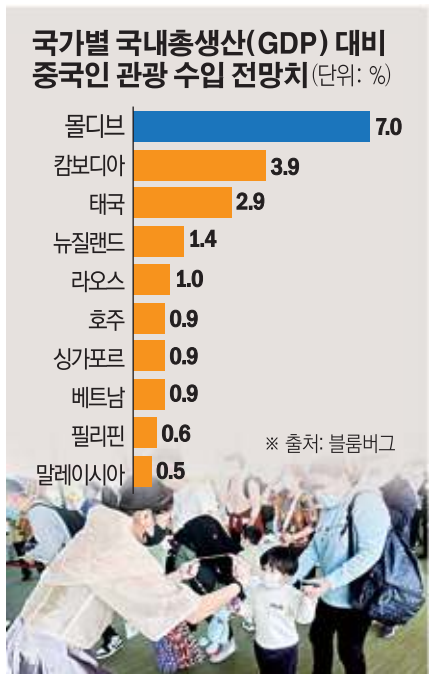
"제로달러 투어라도"… 中 관광객 목마른 동남아

여행사와 결탁해 현지서 돈 안 써
집계 안돼 지역경제 이득 없지만
코로나로 인한 수입 급감에 위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밉상'으로 꼽혔던 '제로 달러 투어' 관광객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계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밉상 관광객들이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팬데믹 전 동남아 국가들은 제로 달러 투어로 자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제로 달러 투어는 중국 여행사들이 초저가 상품을 판매한 뒤 결탁한 업체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해외여행을 뜻한다. 현지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로 잡히지 않는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불법 영업을 부추긴 탓에 동남아 국가들은 '제로 달러 투어'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소득이 급감하자, 이제 제로 달러 투어도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의 폴 프루앙칸은 "우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얀마가 대표적이다. 2019년 미얀마를 찾은 중국인 여행객 수는 140만 명이 넘었지만, 작년 2만3000명으로 급감했다. 미얀마관광협회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사업체의 약 절반이 문을 닫았다.

한 미얀마 여행사의 전무이사인 산다르 카위는 "중국인 관광객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없는 것보단 뭐든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제로 달러 투어 줄이기를 강조했던 베트남도 지금은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다. 베트남도 다낭 지역 호텔 30%가 팬데믹 기간 문을 닫는 등 관광 수입이 급감했다.

태국 관광가이드협회 회장도 "팬데믹 동안 관광 품질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지만, 3년간의 여행객 급감에 익숙한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 같다"며 "여행 고급화 전략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해외 관광 재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시간문제"라고 평가했다. 작년 말부터 정상화를 시작한 중국은 6일부터 태국 등 동남아 6개국을 포함한 20개국의 단체 여행을 허용했다.

팬데믹이 하늘길을 막기 전까지 중국인 해외 관광이 세계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증가했다. 2019년 중국인들이 해외로 떠난 여행 건수는 1억5500만 건에 달했다. 당해 중국인 해외 여행객들은 세계 관광 지출의 16%에 달하는 소비를 했는데 이는 2010년 점유율의 두 배 수준이다.

정영인 기자 oin@

전기차 '빅딜'에… 바이든-머스크 웃었다

바이든, 테슬라 충전소 개방 호평

전기차 지원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모처럼 한뜻을 보이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15일(현지시간)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테슬라가 2024년 말까지 전국 7500개 충전소를 다른 브랜드 전기차에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30년까지 충전소 50만 개를 추가하려는 행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정부는 많은 운전자를 위한 충분한 충전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머스크 CEO와 테슬라가 큰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건 '빅딜'이고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며 머스크 CEO를 추켜세웠다. 그러자 머스크 CEO 역시 "고맙다.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전기차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과거 머스크 CEO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 지원과 관련해 테슬라만 무시한다며 정부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백악관이 주요 자동차 CEO들을 초대했을 때 머스크 CEO가 자신만 초대받지 못하자 불만을 드러냈던 건 유명한 일화다. 하지만 충전소 개방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인다.

다만 이 같은 협력의 이면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도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75억 달러(약 9조6375억 원)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지급안도 마련했다. 여기엔 '합동 충전 시스템(CCS)'이 필수 조건으로 포함됐는데, 미국에서 CCS가 아닌 독자적인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던 테슬라로선 전략 수정이 필요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高금리·高물가 부담에 중고차시장 '가성비 바람'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올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소위 '가성비'가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대, 저렴한 유지비 등 가성비를 중시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가 중고차 선택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이 17~19년식 매물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부터 중고차 시장에는 합리적 가격대를 내세운 가성비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장 특성상 1000만~2000만 원대 차량의 수요가 크지만, 지난해 말부터 1000만 원 이하를 포함한 30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3000만 원 미만 차량의 구매문의 비중은 지난해 1월 기준 54.27% 수준이었으나 12월에는 65.47%까지 치솟았다. 특히 10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한 문의 비중이 7.93%에서 11.73%까지, 1000만~2000만 원

3000만원 이하 중고차 수요
작년 1월 54.3%→12월 65.5%
1억 이상은 4%서 2.3%로 뚝
불황에 강한 중고 경차도 인기

대 차량 문의 비중이 24.12%에서 30.63%까지 늘어나는 등 2000만 원 이하 가격대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반면 고급차, 수입차가 집중된 1억 원 이상 차종의 구매문의 비중은 3.98%에서 2.3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5000만~1억 원 미만 차종 구매문의 역시 19.02%에서 13.74%로 줄어들었다. 구매 문의가 실제 중고차 구매 직전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이 합리적 가격대의 중고차를 찾으며 중고 경차의 인기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표한 2월 중고차 시세에 따르면 높은 가격대의 차종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경차 시세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경차는 접근성 높은 차량 가격은 물론 취등록세 감면, 낮은 유지비 등으로 구매 부담이 적어 경기 불황이 호재인 대표적 상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합리적 소비 트렌드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에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성비 중고차 구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2mj@



세계 최초 광촉매 적용 '재사용 가능' 공기정화 필터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 SAIT 연구진. 왼쪽부터 양동식, 이현철, 권혁재, 구민석 연구원.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공기정화 필터도 '초격차' 물 세척만으로 20년간 재사용

세계 최초 광촉매 적용 기술 개발

삼성전자 SAIT(삼성첨단기술연구소)는 필터 하나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간단한 물 세척만으로 최대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공기정화 시스템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필터가 각각 필요한 탓에 재사용이 어려워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필요했다.

삼성전자 SAIT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 최초로 아산화동(Cu2O), 이산화타이타늄(TiO2) 등과 같이 빛을 이용하는 광촉매를 적용해 신개념 필터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공기정화 기기나 설비의 공간 효율을 높이고, 교체에 드는 유지비용 절감은 물론 필터 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필터 구조는 세라믹 소재의 다공성 공기정화 필터 입구에 무기물 소재의 막을 코팅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출구통로에는 광촉매를 코팅해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이 경우 먼지 포집 용량도 기존 고성능 헤파 필터(HEPA Filter)보다 4배가량 증가한다.

아산화동과 이산화타이타늄과 같이 방수 특성을 가진 소재가 적용돼 물 세척을 해도 성능이 유지된다. 물 세척을 통해 10회 재사용한다고 가정 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기존 헤파 필터 대비 수명이 최대 40배가량 증가한다.

이다솜 기자 citizen@

50돌 장학퀴즈, 대이은 'SK 인재보국' 있었다

"강대국 가는 길은 인재육성"
최종현 선대회장 철학 이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인재보국' 경영철학에 따라 지난 1973년 SK 단독후원으로 첫 전파를 탄 '장학퀴즈'가 18일 방송 50주년을 맞는다.

1972년 MBC는 장학퀴즈 광고주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최종현 회장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면, 열 사람 중 한 사람만 봐도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당시로는 처음인 기업 단독후원사 자격이었다.

SK그룹은 18일 EBS에서 '장학퀴즈 50주년 특집-인재의 비밀'을 방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50주년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콘셉트로 경기 판교의 SK텔레콤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최첨단 확장현실(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망라한 3차원 버추얼 영상기술) 기법으로 생생히 구현된 옛날 장학퀴즈 스튜디오에서 과거 출연자와 현재 출연자들이 50년 시공을 뛰어넘어 흥미진진한 퀴즈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은 특집방송 축사에서 "장학퀴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문화코드가 돼왔다"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파고가 높은 시대를 맞아, 청소년 여러분이 변화를 창조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국내 최장수 TV 프로그램인 장학퀴즈는 1973년 2월 MBC가 방송을 시작했고, 1997년 1월부터는 EBS로 옮겨 방송을 이어왔다. 이미 1993년에 국내 최장수 TV프로그램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한국기록원도 50주년을 맞아 새로 최장수 인증을 보탰다.

장학퀴즈 50년 역사의 뒤엔 최종현 선대회장의 '인재보국' 철학이 있었다. 최 선대회장은 자원·기술이 부족한 한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인재를 키우는 것임을 설파해왔다. 이에 SK는 장학퀴즈 후원을 비롯해 서해개발(1972년)·한국고등교육재단(1974년)·최종현학술원(2019년) 설립 등 인재양성 관련 사업을 펼쳐왔다.

장학퀴즈 500회 특집이 방영될 무렵인 1980년 최 선대회장이 제작진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간 장학퀴즈 투자액이 150억~160억 원"이란 임원의 말에 "그럼 우리는 7조 원쯤 벌었다. 기업 홍보 효과가 1조~2조 원쯤, 5조~6조 원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시킨 효과"라고 말한 일화가 전해진다.

강문정 기자 kangmj@

한화솔루션, 영업익 9662억 '사상 최대'

신재생에너지·케미컬 사업 호조
매출액 13.6兆 전년比 27% 늘어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양대 주력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케미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3조6539억 원, 영업이익 9662억 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도보다 매출은 27.3% 늘었고, 영업이익은 30.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여천NCC 등 자회사 적자에 따른 지분법 손실(1019억 원) 반영으로 전년보다 38.7% 감소한 3780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이 전년 대비 56.0% 증가한 5조568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350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2021년 원재료비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영업손실 3285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뒤 3분기와 4분기 연속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케미컬 부문은 매출이 전년보다 10.2% 증가한 5조9092억 원, 영업이익이 43.7% 줄어든 58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이 전년보다 22.7% 증가한 1조1522억 원, 영업이익은 263.9% 늘어난 353억 원을 기록했다. 완성차 업계의 생산 물량 확대에 따라 부품 소재 수요가 늘었고, 태양광 모듈용 소재(EVA 시트) 판매가 증가했다.

갤러리아 부문은 소비 심리 회복에 힘입어 전년보다 매출이 3.5% 증가한 5327억 원, 영업이익은 29.1% 증가한 373억 원을 기록했다.

신용인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석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미국 태양광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올해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미래 신기술 집중한 현대모비스, 작년 특허만 3000건

글로벌 표준특허 개발 나서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국내외에서 약 3000건에 달하는 특허를 출원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분야 관련 특허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2023 특허 어워즈'를 개최하고 지난해 우수 특허에 대한 포상·창의적 연구활동을 장려했다.

목적기반차량(PBV) 관련 기술과 함께 악천후에도 안전주행을 돕는 신개념 자율주행 카메라, 측면 충돌 시에도 실시간으로 에어백을 전개할 수 있는 차세대 사이드 에어백 등이 우수 기술로 선정됐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과 통신 분야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특허 출원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해외에서 출원한 지식재산권이 국내 출원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우선 글로벌 표준특허 개발을 통한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준특허는 국제 표준기구에서 인증받은 원천기술로, 제삼자가 해당 기술을 자사의 제품에 활용하려면 표준특허를 보유한 회사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이민재 기자 2mj@

포스코인터, 수단 제약법인 매출 301억

비즈니스·사회공헌 동시 실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비즈니스'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제약법인이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신풍제약과 합작 투자한 수단제약법인(GMC)이 지난해 매출 301억 원(2359만 달러), 영업이익 103억 원(805만 달러)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각각 36%와 42% 성장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978년에 국내 기업 최초로 아프리카에 진출했다. 수단제약법인 설립 시기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1988년으로, 사업적 목적보다는 현지 국민의 의료보건에 기여하고자 한 바가 더 컸다.

당시 수단 국민은 오염된 나일강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디스토마로 대표되는 기생충 감염에 특히 취약했다. 이에 1994년 수단제약법인은 생산 의약품 1호로 수단 최초의 흡혈충 구충제 '디스토시드(Distocide)'를 생산·보급해 필수 치료제로 자리 잡으며 '국민의료 약'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법인은 항생제, 말라리아 치료제, 당뇨·고혈압 치료제 등 제품군을 늘려, 20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수단 제2위 제약회사로 자리 잡았다. 10년 안에 업계 1위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업력 7년에 대출 막혀”… 엄격한 잣대에 자영업자 원성

5년간 연 2% 고정금리 상품
창업 7년 이상 업주 대출 불가
“정책자금 차별 없어야” 호소
중기부 “법 적용…규정 못바꿔”

대구에서 13년간 공부방(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해 온 김유미(45) 씨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저신용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부방을 운영한 업력이 7년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 대출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직접대출)으로,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5년간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대상 조건에 업력 7년이 달렸다.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김 씨의 경우는 저신용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빌린 돈(차입금)이 매출액보다 많아져 신청에서 제한됐다.

김유미 씨는 “개인과외교습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공부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8000만 원을 빌린 후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 직접대출을 신청했지만 업력 7년 이상 기준으로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직접대출 담당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수차례 연락해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7년 이상 자영업을 하는 70여 명의 사장과 접촉했다. 이들은 갑자기 생겨난 업력 7년 기준의 불공평함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만들었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동의서 서명에 1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동참했다.

호소문에는 업력 7년 이상의 자영업자를 차별하는 대출 불가 공문조항인 7~9번의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이 항목에는 7년 초과 소상공인은 △총차입금이 매출액(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 매출액) 대비 100% 초과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표준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했을 경우 등 조건이 달렸다.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면 7년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1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2차 직접대출 신청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차별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가의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1만여 명의 동의서를 모은 김유미 씨는 호소문을 중기부와 국회 양당에 전달할 것이라 전했다. 김 씨는 “당장 2차, 3차 직접대출에 불공정한 업력 7년 기준을 바꿔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제외됐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추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제안이 거절을 당한다면 서명 운동을 재개해 최종 목표로 자영업자 100만 명에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호소에도 중기부는 향후 진행되는 직접대출 신청에 지원 대상 조건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그간 진행해왔던 대출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업력 5년’을 대출 지원 심사 기준으로 삼아왔고, 지난해부터 기준을 2년 더 늘려 적용했다는 것이 중기부 측 주장이다. 업력을 늘린 것은 창업기업들이 창업지원법에 따라 업력 7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중기부는 저신용자 정책자금 외 다른 직접대출은 업력 상관없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까다롭게 적용받는다고 알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대출 자금은 1.9조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자금 1.1조 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만 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지 사실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규정을 바꾸기는 힘들다”며 “상환을 받아야 다음 1~2년 후에 상환받은 돈으로 또 대출을 해주기에 변동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T커머스를 활용한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정문·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중앙대 교수.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中企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경쟁 과열 우려” 반대 목소리도

중소기업계가 판로확대를 위한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T커머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T커머스를 활용한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홍석준·이정문·최형두·김경만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이 생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개 단체 ‘규제 완화’ 요구
“中企 판로 확대 위해 필요”
기존 업체 “성장 주춤” 반대

T커머스는 TV 시청 중에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 리모컨을 사용해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다.

홈쇼핑은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지만, T커머스는 녹화방송으로만 진행된다. 도입 당시 홈쇼핑 업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뤄진 조치다.

국내에는 10개의 T커머스 채널이 있고, 이중 4개는 홈쇼핑 채널에서 운영한다.

홈쇼핑 채널은 7개가 있고 이 중 홈앤쇼핑·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전문이다. T커머스 채널 중에는 중소상공인 전문인 곳이 없는 만큼 신설이 필요하다는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홈쇼핑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됐고, T커머스가 유일하게 성장 중”이라며 “중소상공인이 활용하기 좋은 채널임에도 규제로 인해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가원’의 김가형 대표는 토론 패널로 참석해 “중소상공인은 T커머스의 녹화 영상을 다른 마케팅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중소상공인 전용 TV홈쇼핑으로 기회가 많아졌듯 T커머스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 주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T커머스 채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T커머스협회 관계자는 “T커머스 성장률이 1%대인 상황에서 채널 확대는 경쟁만 과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홈쇼핑 채널에서 운영하는 T커머스 채널이 시장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와 중소상공인 판로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채널 추가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홈쇼핑과 T커머스사를 합친 방송사업의 매출은 지속 하락세에 있다. 2015년 3조1972억 원에 달했던 매출은 2021년 3조115억 원으로 꺾였다. 전체 매출에서 T커머스의 비중은 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은 줄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소상공인 전용 채널 신설이 판로개척·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중소상공인 전용 홈쇼핑 회사인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마저 T커머스 채널 신설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널 신설과 수익성 개선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다.

새 사업자를 추가하면 ‘황금 채널’을 둘러싼 송출수수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예지 기자 sun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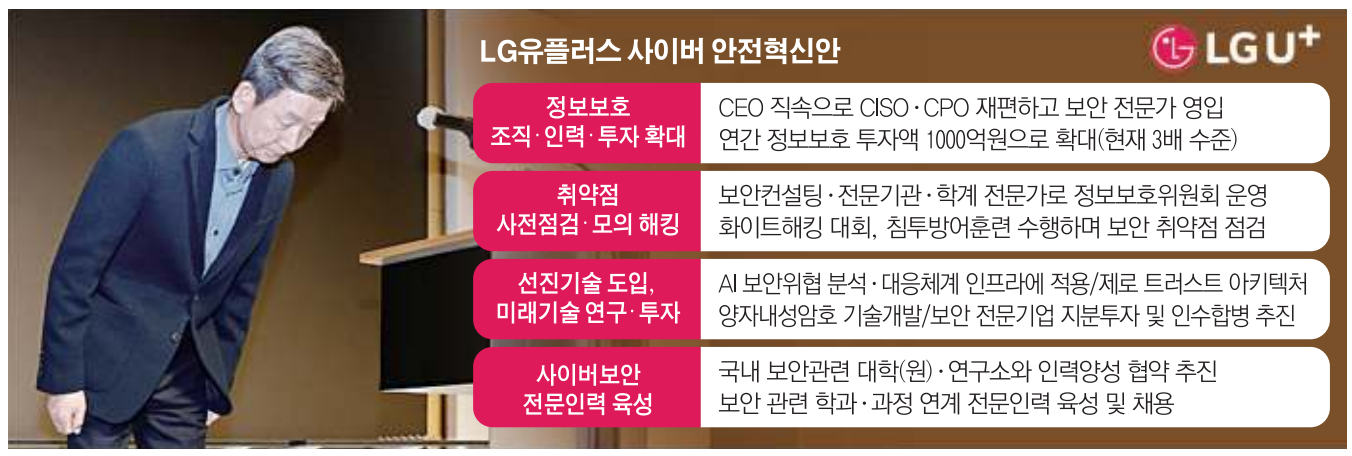
〈年 1000억원〉

고개 숙인 LG U+ "정보보호 투자 3배로 늘리겠다"

'디도스 해킹 장애' 대국민 사과

황현식 대표 "기본부터 다시 점검
정부조사 끝나는 대로 보상안 마련"

정보보호 조직 'CEO 직속' 재편
고객 유형별 피해 지원안 마련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약속
외부 전문가와 취약점 사전점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정보유출과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과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결코 잊지 않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앞으로 보안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간 내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책임자(CISO·CP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강화하고, 각 영역별 보안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16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정보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방안으로 사이버 안전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보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한 사안으로,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고객이라는 점을 되새겨 고객관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엽 CTO는 "개인정보 판매자가 2000만 건의 고객 정보 보유를 주장하며 6비트코인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대형 보안 전문 협력업체와 판매자에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59만 건의 데이터를 입수했고,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29만 명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CTO는 "분석 결과 2018년 데이터로 추정되며 당사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 고객 18만 명을 대상으로 1차 고지, 11만 명은 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확인해 2차로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 관련 금융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사고의 위험은 없고, 유심 번호만으로는 복제가 어렵지만, 여전히 스팸이나 스미싱에 활용될 수 있는 우려는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1월 29일, 2월 4일 총 5번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터넷 서비스 장애도 발생했다. 권준혁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이번 공격은 장비 간 연결 신호를 활용해 통신망 장비를 공격한 사례"라며 "대용량 트래픽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는 운영 중이었으나 통신망 장비로의 공격 방어체계는 다소 미흡했다"고 밝혔다. 권 부사장은 "주요 장비부터 방어체계를 보강하기 시작했고 5일 완료했다"며 "현재까지 간헐적 공격은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 영향 없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정보보호 조직·인력·투자 확대 △외부 보안전문가와 취약점 사전점검·모의 해킹 △선진화된 보안기술 적용 및 미래보안기술 연구·투자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육성 △사이버 보안 혁신 활동 보고서 발간 등 사이버 안전혁신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고객별 피해 유형과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종합 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고, 별도 사이트와 전용번호 개설 등을 통해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상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원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정리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및 개선 사항 이행, 피해 파악 및 지원 등을 위한 전담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알뜰폰, IPTV 가입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안에 가장 강한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정보보안 조직과 관련 인력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P2E 국내 서비스 막히고, 실적 추락했지만…

게임업계, 꺾이지 않는 '웹3 투자'

게임 장르 늘리고 글로벌 공략
엔터·NFT·멤버십… 사업 확장
"블록체인 게임 등 발전 가능성
인력 등 재원 투입 이어질 것"



국내 게임사들이 실적부진과 국내 금지 기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웹3 게임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 각사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게임사들이 국내 서비스 금지 기조에도 이른바 '돈버는게임(P2E·Play to Earn)'으로 불리는 글로벌 웹3 게임 시장 개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뿐 아니라 NFT(대체불가토큰)와 다오(탈중앙화자율조직) 등 웹3 생태계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이들 게임사들은 웹3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넷마블 등이 적자 전환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들 게임사는 저마다 올해 웹3 사업 계획을 공유하며, 생태계 확장 및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구축한 위믹스플레이, 나일, 팬토큰 등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해 선점 효과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M' 글로벌이 성과를 내고 있고, 1분기에는 애니팡 IP를 활용한 '애니팡 3종'과 NHN 빅풋이 개발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바일로 스포츠' 등을 온보딩해 장르 다양화에도 나선다.

10년 만에 연간 적자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넷마블도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마브렉스(MBX) 3.0 생태계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BNB체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멀티체인 생태계 구축하는 한편, 2분기에는 보드게임과 메타버스가 결합한 '메타월드:모두의마블'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유자에게 생태계 NFT 화이트리스트 제공과 MBX 코인 보상 등을 제공하는 멤버십 NFT인 '마블러십'의 첫 INO도 진행한다. 국내 웹3 게임사 중 첫 멤버십 NFT 시도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생태계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FTX 파산사태로 부침을 겪은 컴투스그룹의 엑스플라(XPLA)는 최근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으로 생태계 정비에 들어간다. 현재 6개인 온보딩 게임을 자체 IP인 '서머너즈워: 크로니클'과 '미니게임천국' 등을 포함해 올해 2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양한 성향의 이용자를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NFT, 엔터테인먼트, X2E 디앱 등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네오위즈는 30여 개 파트너사가 동참하고 있는 웹3 플랫폼 '인텔라X' 구축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카카오게임즈도 최근 기존에 서비스 중이던 '버디샷'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고, 올해에는 캐주얼 게임 '보라배틀', 스포츠 게임 '베이스볼 더 블록', 카카오VX와 협업하는 '프렌즈 스크린 NFT' 등을 준비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산업 흐름이나 블록체인 게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선제적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인력 등 재원 투입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LG CNS '5G특화망' 사업 본격화

경희대와 '이음5G 구축' 협약
스마트팩토리 적용 솔루션 개발

DX전문기업 LG CNS가 고객의 DX혁신을 위한 5G특화망(이음5G) 사업을 본격화한다.

LG CNS는 이달 초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와 '이음5G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이음5G를 기반으로 제조·물류 등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 CNS와 경희대는 이번 협약으로 이음5G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예지보전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LG CNS와 경희대는 스마트팩토리의 로봇, 컨베이어벨트 등에 탑재된 모터에서 △전류 △온도 △진동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하는 실증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터는 데이터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패턴을 사전에 감지하고, 모터의 고장을 미리 진단하는 것이 이 솔루션의 주요 역할이다.

5G특화망을 활용하면 스마트팩토리 모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일반 이동통신망이 아닌 별도의 전용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우수한 보안 등이 특징이다.

LG CNS는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건물을 기준으로 반경 약 400m 옥외에 이음5G를 확대 구축해 △무인항공기(UAV) △무인운송로봇(AGV) △자율주행로봇(AMR) 등을 원격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드론배송, 순찰·안내로봇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다.

LG CNS 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전무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제조, 물류를 포함한 전체 산업 현장에서의 이음5G 활용도를 높이고,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KT "건물 입주 소상공인에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KT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KT 건물에 입주한 2000여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30%가 감면된다. 3개월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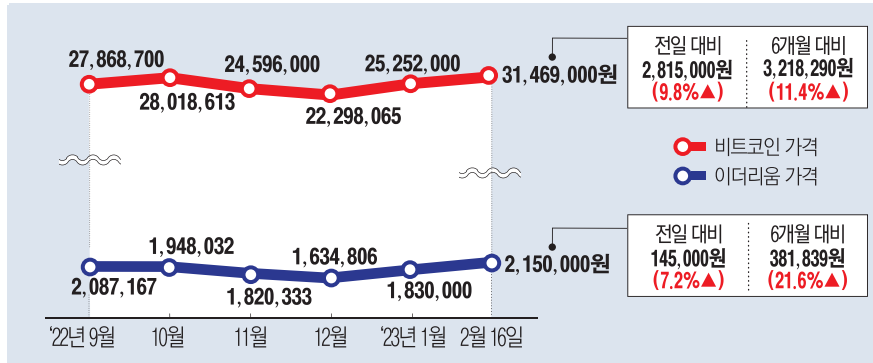
주로 전국 곳곳의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 친화 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한편, KT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등 '착한 임대료' 확산에 앞장서 왔다. 조성준 기자 tiatio@

---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3년 2월 16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72,000	9,600 (5.9%▲)	이오스	1,420	66 (4.9%▲)
리플	512	16 (3.2%▲)	트론	90	2 (2.3%▲)
솔라나	30,330	2,410 (8.6%▲)	스텔라루멘	116	5 (4.5%▲)
에이다	520	22 (4.4%▲)	비트코인에스브이	54,450	1,600 (3.0%▲)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국회 문턱서 차일피일

국회 논의 빨라야 4월…통과 요원
국토부도 “여론수렴” 신중한 태도
프롭테크 반대·위헌 논란 등 변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 중개업소 개설 시 협회 가입 의무화
- 협회에 법률 위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권한 부여
- 협회에 국토부 등 위탁으로 인한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 부여

※ 출처: 김병욱 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법정단체 지정은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 논의 일정은 현행 기준상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역시 프롭테크(부동산 IT회사) 업계의 반대와 단일 법정단체 지정 시 위헌 논란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지정 속도를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법정단체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은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1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정보 확인과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5개만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발의된 법안이다. 10월 발의된 중개사 법정단체 지정 법안보다 늦게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 먼저 상정된 것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이달 국토위 법안소위는 17일이 마지막이다.

법안 논의를 위해선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4월에나 열릴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다. 여야 합의로 3월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임시국회 개회는 현재로썬 불투명하다.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될지 의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려면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화 법안은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 하긴 했지만 여야 전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정부 의견도 중요해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역시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여전해 법정단체 지정 추진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의 법정단체 지정이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일하는 공인중개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비슷한 상황인 건축사협회의 단일 협회 의무 가입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확정 이후 법안 논의를 이행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다.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건축사들이 단일 협회 가입이 헌법(결사의 자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사협회 간 만남을 여러 번 진행했지만, 단일 협회 설립을 놓고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프롭테크 쪽의 반대 의견이 거세고, 건축사협회 관련 헌법소원 심판 결과도 곧 나올 것이므로 모든 상황을 종합해 의견을 낼 것이다. 현재로썬 (법정단체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공협은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는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종혁 회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회원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 역시 “중개사분에게 영업 방식을 강요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오락가락 서울 집값… 한주 만에 하락폭 둔화

지난주 거래절벽·급매물에 내리막
한주 새 강남·용산 중심 낙폭 만회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다시 축소됐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주 연속으로 낙폭이 줄었지만, 지난주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하락폭이 커졌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연착륙 대책으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주 만에 다시 하락 폭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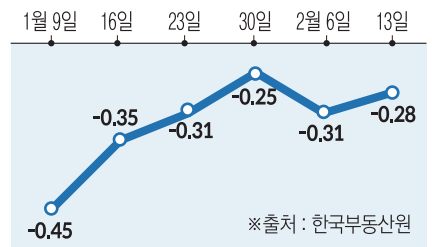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8% 내려 전주(-0.31%) 대비 0.03%포인트(p) 하락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59% 내렸다. 누적 기준으로 전국 하락률(-3.32%)과 수도권 하락률(-3.97%)보다 내림세가 덜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 낙폭 축소는 대규모 규제 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규제 완화 조치로 거래량이 증가했다”며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급매물 위주의 저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가팔랐던 강남권의 회복세가 도드라졌다. 강남구(-0.15%)와 서초구(-0.13%), 강동구(-0.41%)는 지난주보다 각각 0.04%p와 0.10%p, 0.07%p 낙폭이 줄었고 송파구(-0.19%)만 0.01%p 하락세가 커졌다. 영끌 수요가 밀집한 구로구(-0.38%)도 0.02%p 낙폭을 만회했다.

강북권에선 용산구와 마포구 등 도심지역의 하락 폭 축소가 눈에 띄었다. 용산구는 이번 주 0.19% 하락했고, 마포구는 0.24% 내렸다. 각각 전주 대비 0.03%p 오른 수준이다. 서대문구 역시 지난주보다 0.14%p 오른 -0.32%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단위 : %) ※ 2023년 기준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값도 하락 폭이 줄었다. 인천은 전주 대비 0.12%p 상승한 -0.39%로 집계됐고, 경기는 0.11%p 오른 -0.64%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셋값도 하락 폭을 만회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 -0.91% 하락해 전주 대비 0.04%p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74% 내려 한 주 만에 0.02%p 올랐다.

이동욱 기자 toto@

‘정비사업’ 틈새시장 ‘가로주택’ 수주경쟁

최근 중견 건설사들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아 중견 건설사들의 텃밭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일찌감치 물밑에서 일감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90-45번지 일대를 개발해 지하 2층~지상 15층, 5개 동, 20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앞서 이곳은 지난해 7월 첫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첫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설명회에는 △자이S&D △대방건설 △화성산업 △에이스건설 △일성건설 △남광토건 △동문건설 △산이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작년 1차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며 “최근 몇몇 건설사들이 찾아오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일 2차 현장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구역 인근에 있는 미아3구역 역시 시공사 선정에 한창이다. 조합은 이날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미아동 767-51번지 일대 9489㎡를 개발해 지하 2층~지상 10층, 2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한다.

미아3구역은 앞서 지난달 2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두산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청재종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시간강사입니다』 이병철 시인의 배달 에세이



시와 문학평론을 쓰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병철 시인

시간강사의 유쾌하고도 쓸쓸한 배달 일지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지원한 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국내 연수’ 연구원에 선정됐을 때만 해도 내 앞날이 장밋빛으로 보였다.
그러나 박사 후 국내 연수가 종료되면서 월 고정 수입의 60퍼센트가 없어졌다.
인문학 연구자들은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야말로 ‘잉여 인간’이 된다.

지금의 나를 지키려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렇게 구직 사이트를 한참 뒤져보다가
문득 요즘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가 ‘핫’하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그래, 이거야!

도서출판 걷는사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길 51 서교자이빌 304호 Tel 02 323 2602 Fax 02 323 2603 e-mail walker2017@naver.com

우리금융 임종룡號 'CEO 면접' … 이원덕 안고 가나

〈우리은행장〉

업무보고 첫 만남… 유임 가능성
계열사 CEO들 만나 인사 판단
대대적인 인적쇄신 나설지 주목

다음달 24일 우리금융그룹 새 회장으로 취임하는 임종룡 내정자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인사 폭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감한 조직혁신과 신기업문화 정립을 공언한 임 내정자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회장 후보 경쟁자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경우 임 내정자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유임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전날 이 행장을 통해 우리은행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임 내정자와 이 행장의 첫 만남이 이뤄진 자리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임 내정자가 이 행장의 유임 여부를 사실상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종룡

전날에는 은행을 포함한 2~3개 계열사 CEO가 임 내정자에게 업무 현황, 주요 과제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전날 은행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 14개 계열사 CEO들을 만나 업무 현황을 차례대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임 내정자가 자회사 경영진을 만나 업무보고 받는 과정이 CEO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사실상 'CEO 면접전형'을 치르는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임 내정자가 외부 출신인 만큼 내부와의 소통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살핀 뒤 CEO 인사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다음 달 24일에 열리는 주주총회 전후로 자회사대표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CEO 선임에 나선다.

자회사 CEO 중에서도 이 행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 자산총액의 80.4%를 차지하는 만큼 은행장은 지주 '2인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행장은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같은 한일은행(우리은행의 전신) 출신으로, 손 회장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또 임 내정자와는 회장직을 두고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탓에 임 내정자가 취임하면 임기 중간이더라도 행장직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 행장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행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임기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임 내정자가 무리하게 인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직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임 내정자가 차기 회장직 후보로 최종 낙점된 후 계속된 '관치금융' 논란이 임 내정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자회사 CEO를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인사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유임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바뀌자마자 다 내쳤다'는 소리를 듣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임기가 1년 정도가 남은 CEO들은 임기를 다 채우고 유임되는 등 좀 더 유연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인적쇄신이 이뤄지면 내부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경영진이 외부 인력으로 대거 수혈되면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 내정자가 우리은행 내부의 계파 싸움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계열사 CEO 인사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두 은행 출신 간 갈등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우리은행의 내부 갈등으로 지적된다.

다만,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갈등이 과거보다는 많이 옅어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업·한일은행은 1999년에 합병해 한빛은행으로 상호를 바꾼 뒤 2001년에 신규 채용을 진행했는데, 당시 입행한 이들이 부점장급 이상이 됐다.

유하영 기자 haha@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CEO 임기

임기 중		
이원덕	우리은행장	2023년 12월 31일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2023년 7월 31일
최동수	우리금융F&I대표	2023년 12월 31일
이중호	우리신용정보 대표이사	2023년 12월 31일
고정현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이사	2023년 12월 31일

임기만료		
박경훈	우리캐피탈 사장	2023년 1월 12일
신명혁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이사	2023년 1월 12일
김종득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2022년 12월 31일
이창재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	2022년 12월 31일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2022년 12월 30일
고영배	우리펀드서비스 사장	2022년 12월 31일
김경우	우리PE자산운용 대표	2022년 12월 31일
최돈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	2022년 12월 31일
최광해	우리금융연구소 소장	2022년 12월 31일

※ 출처: 우리금융지주



KB라이프, 고액자산 전문가 'KB STAR WM' 공식 출범

KB라이프생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라이프타워 스타홀에서 2023년 'KB STAR Wealth Manager(이하 KB STAR WM)'의 공식적인 출범을 기념하는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KB STAR WM'은 KB금융그룹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액자산가(VIP)를 위한 종합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전문가다. 2년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서비스를 KB라이프생명의 정규 서비스로 확대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 印尼서 현장경영

KB FMF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이 글로벌 현장경영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이 사장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B Finansia Multi Finance(이하 KB FMF)'를 방문해 현지 시장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장이 해외 방문을 나선 건 자동차·오토바이·내구재 할부금융 등 글로벌 신사업 부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을 통해 KB FMF 최고경영자(CEO)인 얍 타이 힝 대표 및 경영진과 핵심사업영역 점검 및 현지 시장 공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코로나19 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해 성과를 보인 KB FMF 우수직원들을 시상하고, 성과 및 공로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지연 기자 sjy@

신한은행, 5대 은행 첫 '대출 중개 플랫폼' 출시

신한은행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최초로 대환대출 인프라와 연계할 '대출 중개 플랫폼'을 6월 말 출시한다.

16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적금 중개 플랫폼을 출시를 위한 인가를 받고 6월 말 출시 예정에 있었다"며 "대출 중개도 같이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대출 중개 플랫폼이 구축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신한은행 앱에서 은행권·저축은행·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예·적금 중개 플랫폼까지 동시에 출시하면 이용자들은 신한은행 앱에서 예·적금, 대출까지 간편하게 검색·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이용자의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자산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재영 기자 ljy0403@

금감원, 보험사 검사 첫 타깃은… 흥국생명·메리츠화재

'콜옵션 미이행 사태' 흥국생명 하반기 예정에서 순서 당겨져
부동산 PF 대출 메리츠도 촉각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권 정기검사 첫 타깃으로 흥국생명과 메리츠화재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16일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보험권 정기검사로 상반기에는 흥국생명과 메리츠화재를 선정, 지난주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달 사전 점검 이후 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신한라이프와 코리안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건 흥국생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흥국생명은 하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순서가 1순위로 당겨졌다"라며 "지난해 말 콜옵션 미이행 사태 영향으로 리스크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작년 11월 5억 달러(약 68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하겠다고 발표해 채권시장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대내외로 국내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자금 경색 위기가 제2금융권 전반으로 파급됐다. 외화채권시장에서 흥국생명의 채권 가격이 약 30% 급락한 데 이어 제1금융권의 신종자본증권 가격도 끌어내렸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고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축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대응 방안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첫 타자는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타사 대비 높은 편이다. 올해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메리츠화재가 부동산·임대업에 내준 대출채권 연체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75억 원 수준으로 1년 전(136억 원)과 비교해 984% 폭증했다. 연체액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1106억 원, 6월 말 기준으로는 1246억 원으로 매 분기 늘어나는 추세다.

회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자사 부동산 PF 대출은 100% 선순위일 뿐더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평균 50%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발표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융사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기인 만큼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금융사가 보유한 고위험 자산에 대한 집중관리도 들어갈 것"이라며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애플페이, 현대카드로 먼저 쓸래"

다음 달 국내 출시 앞두고 설문
10명 중 6명 첫 도입 현대 선택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다음 달 국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시장을 먼저 선점한 "현대카드로 먼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6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2082명을 대상으로 '애플페이, 어떤 카드로 이용 예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응답자의 57.0%(1187명)는 애플페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현대카드로 애플페이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30.7%(640명)는 '타 카드사로 이용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응답했다.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2.2%(255명)였다.

앞서 현대카드는 8일 "애플과 협업해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 하겠다"고 말했다. 출시일은 내달 초가 유력하다.

애초 현대카드 독점이 예상됐던 애플페이는 금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서비스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타 카드사에서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전국 편의점, 코스트코를 비롯해 백화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 여러 가맹점에서 애플페이 도입 초반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SM 공동대표〉

반격 나선 이성수 "이수만 역외탈세, 하이브 몰랐나"

진흙탕 싸움 된 'SM 인수전'

하이브 SM 새 이사진 발표에 이 대표, 이수만에 날선 비판
매출 축소·음원 발매지연 주장
카카오엔터 1.5兆 자금 확보 단가 높여 공개매수 전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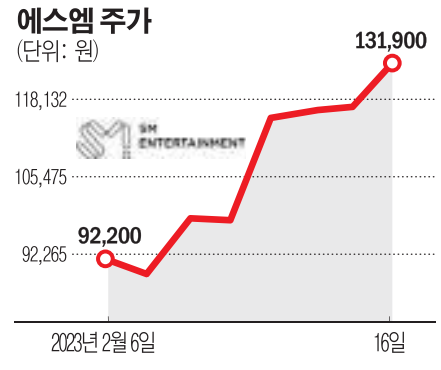
'SM 인수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SM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여러분 앞에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입을 뗐다. 그는 "오늘 발표 중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다"며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제안할 SM 새 이사진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 하이브는 몰랐나" = 하이브가 제안한 사내이사 후보는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 등 3명이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한국대표가,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로는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엔씨소프트 기타비상무이사 출신), 비상임감사 후보로는 최규담 회계사(엔씨소프트 재무전략실장 출신)가 각각 올랐다.

이 밖에 주주제안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내용을 비롯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에 이 대표는 약 28분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을 향한 맹공을 가했다. 동영상에는 "해외판 라이크기획 'CTP'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 "SM 모든 곡에 '나무심기' 가사 넣기를 강요 받았다" "100억 원짜리 이수만 주총(주주총회) 대응반을 만들라 했다" 등의 14가지 항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 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과 관련, "이 전 총괄은 2019년 홍콩에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라는 회사를 자본금 100만 달러로 설립했고, CTP는 이 전 총괄 100% 개인회사로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총괄은) 기존의 프로듀싱과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계약 구조만 해외 레이블사와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를 거치게 하면서 기형적으로 (구조를) 바꿨다"며 "이 전 총괄은 SM과 (해외) 레이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14년·2021년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이 국세청에 지적돼 거액의 세금을 냈던 선례를 피하려 한 시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라이크기획은 지난해 말까지 수년 간 SM과 연간 100억 원대에 달하는 고액 자문료 계약을 맺어온 이 전 총괄의 자회사다. 앞서 행동주의펀드 얼라인 측은 10일 이 전 총괄이 하이브 측에 18% SM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 "지난 10월 이 전 총괄과 SM의 라이크기획 자문계약은 종료됐지만, 이 전 총괄이 2092년까지 70년 간 음원수익 6%를 로열티를 챙기는 계약은 남아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하이브 계약과 무관하게) CTP와 해외 레이블사 간의 앞선 계약은 작년 연말 종료된 SM과 라이크기획 간의 프로듀싱 계약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며 "왜 (하이브가) 굳이 주식매매계약서에 '해외 프로듀싱' 약정을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역외탈세 논란이 제기된 'CT 플래닝 리미티드'와 SM의 계약 관계에 대해 "이 전 총괄이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CTP가 SM과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내용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와 이 전 총괄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전 총괄과 SM 간의 거래 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 총괄이 CTP를 소유하고 있고, CTP와 SM 간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게 하이브의 설명이다. 하이브는 "CTP가 이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SM과 문제가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계약을 승인한 SM 내의 주체들이 누구였는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해외 프로듀싱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계약 조건에 대해선 "이 전 총괄의 해외 프로듀싱 허용은 SM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프로듀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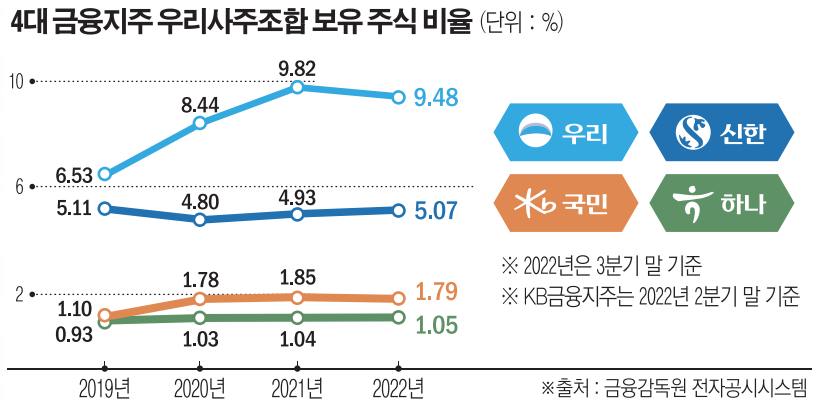
◇"이수만, 소속 가수에 나무심기 가사 강요" = 이 대표는 또한 이 전 총괄에게 수차례 "SM과 아티스트는 이 전 총괄이 필요하다"는 성명 발표, 100억 원짜리 이수만 주총대응반 설립, 이 전 총괄이 없는 기간의 SM 매출액 축소와 음원 발매 시기 지연 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달 20일 예정됐던 에스파의 컴백이 밀린 이유에 대해 이 전 총괄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전 총괄은 나무 심기를 강조하고, 나무 심기를 연계한 케이팝 페스티벌을 각국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에스엠 내부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이라기보다는 '이수만 개인 프로젝트'로 불렸다"고 했다.

그는 "나무 심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즉 ESG를 표방한 메시지와 새로운 시장 개척 및 문화교류를 외치는 이면엔 이 전 총괄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다"며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는 부지 소유권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사용권으로만 가능해 이를 조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했다.

한편 SM의 이날 주가는 13만1900원에 마감했다. 키움증권은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나선다면 예상가격을 14만1000원으로 봤다. 문수빈 기자 bean@·권태성 기자 tskwon@





'관치 반대' 주주제안·M&A 개입하며 경영 참여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 ②

최근 기업 우리사주 의견 수용 이사회 권한 강화 등 ESG 경영
백기사·캐스팅보트 등 역할 다양 KSS해운 경영권 방어 나서기도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30일 KB금융그룹 이사회 사무국에 임경종 씨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임 후보는 은행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 추천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등의 형태로 다섯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를 내세웠지만, 모두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이란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막강한 지분을 앞세워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간섭하거나 사외이사 자리를 달라고 한다. 때론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최종 결정권)' 역할도 한다.

기업과 우리사주의 건전한 동반자 관계는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사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은 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들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CEO선임 목소리 내고, 무이자 대출까지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와 노조(우리시주)의 갈등은 잠시 봉합된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지배구조 및 사업 구조 개편,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를 추천한 KB금융그룹 노조는 주주제안을 통해 '최근 5년 이내 행정부 등에서 상시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3년 동안 대표이사(회장) 선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고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치금융', '낙하산'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우리사주는 금융권에서 노조 힘의 뿌리다. 작년 말 은행권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우리사주조합장이 나란히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했다. 이들은 우리사주 무이자 대출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노조 스스로 '공정'과 '관치'를 외치면서 본인들에게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사이에서는 이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SK의 경우 2021년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표이사를 평가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변화에 동참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사주의 건전한 목소리에 기업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M&A서도 우리사주조합 목소리 커질 듯 = 지난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확정했다. 하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1291%(2022년 9월 말 기준)에 달하는 부채 등 경영 정상화도 문제지만, 대우조선 노조와의 화학적 결합도 난제다. 우리사주 대부분이 노조다.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 인수 시도 당시 노조가 실사에 반대해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대우조선 노조는 한화가 인수 추진 사실을 밝힌 이후인 지난해 10월 전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현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화와 산은이 맺은 인수 계약에는 대우조선 등기 임원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M&A 시장에서 우리사주의 목소리는 더 자주 들릴 전망이다. 캐스팅보트나 백기사 등 형태도 다양할 전망이다.

실제 KSS해운의 우리사주조합은 창업주인 박종규 고문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연해 결성했다. 지분율은 11.91%로 박 고문에 이어 2대 주주다. 은퇴한 박 고문의 보유 지분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시장에 흘러나올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측은 '우리사주 갖기 운동' 등 내부 운동을 통해 보유 지분율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내달 국회서 STO 토론회 개최 금융위 가이드라인 논의할 듯

증권가 신사업 진출 준비 활발
발행·유통 분리기준 명확해야

토큰증권(STO)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사들도 새로운 사업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국회 정무위에서 STO 관련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 금융위가 발표한 STO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 있는 '조각투자'는 증권화를 통해 거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3의 증권'으로 불리는 만큼 증권사들도 신사업 영역 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STO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TO와 관련한 회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 중이고, KB증권은 자체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STO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하고 유통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조각투자 업체와 관련된 것을 증권사가 모집 주선했다고 해서 증권사가 발행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를 발행자로 같이 묶는다는 것인지 발행자의 개념이 지금보다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권태성 기자 tskwon@
박상인 기자 si2020@

삼성물산 "5년간 3兆 규모 자사주 소각"

3개년 주주환원 정책 확정

삼성물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일관된 정책 이행으로 안정적 주주환원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 자사주 전량을 분할 소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삼성물산은 먼저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70% 수준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자사주 전량을 향후 5년간 소각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보통주 2471만8099주(13.2%), 우선주 15만9835주(9.8%)다. 이는 시가로 보면 약 3조 원 규모다. 소각 규모는 매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삼성물산은 향후 3년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창출 재원의 대부분을 쓸 계획이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 수소, SMR(소형모듈원자로), 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사업 확대와 바이오 프로세싱, 의약품 개발·연구 수탁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진입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면서 이날 삼성물산 주가는 전일보다 4200원(3.77%) 오른 11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금융의모든순간

NH농협금융

일상의 금융에서
일생의 금융으로

소중한 이와의 삶을 위해
견뎌야 하는 행복의 무게도

농협금융과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소중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보툴리눔 소송' 2차전

"자의적으로 부당한 판단 내리고 일부 누락하며 이중적 태도 보여"
1심 판결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메디톡스 "추가 법적조치 할 것"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6년간 이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균주 출처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패한 대웅제약은 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메디톡스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 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한다"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규정했다. 대웅제약 입장은 원고인 메디톡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 자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은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 혹은 판단 누락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은 2016년에 시작됐다. 같은해 11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균주와 기술을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면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정 대표는 균주 출처를 명확히 밝히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메디톡스는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1979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균주를 공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하변천에서 채취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양사의 1차 균주 도용 공방은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6년 뒤인 현재 국내 민사 소송으로 균주 도용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증거 등에 비춰볼 때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01억 원 중 400억 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은 이미 만든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이라며 "(메디톡스의)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다.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재판부가) 인정해 버렸다"라며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6년전 주장했던 균주 유래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며 근거로 검찰 수사를 제시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당시 검찰 수사에서 균주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 수순으로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1심 판결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고, 항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반면 기각된다면 국내와 중국 등에서 나보타 영업이 제한된다.

증권가는 나보타 판매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대웅제약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이 법원 판결문을 수령했지만 비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보톡스 제제 관련 미국 협력사인 에볼루스가 진출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상태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비(非)에볼루션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실적 추정치를 하향한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1심 승소에 이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가겠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스타벅스 "봄 맛보러 오세요" 16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모델들이 국내산 설향 딸기를 활용한 신규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스타벅스는 스프링 시즌을 맞아 '봄 딸기 라떼', '라일락 블라썸 티' 등 신규 봄 음료 3종과 '봄 딸기 초콜릿 스윗박스', '봄 딸기 카스텔라 샌드' 등 봄 시즌 푸드 4종을 출시했다. 신규 봄 음료 출시를 기념해 28일까지 스타벅스 리워드 그린, 골드 레벨 회원이 등록된 카드를 이용해 신규 음료 중 한 잔을 사이렌 오더로 구매 시 품목당 별 3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뚜기, 진라면에도 '친환경 포장재'

플렉소, 친환경 수성잉크 사용
기존 대비 사용량 30% 이상↓



오뚜기는 '플렉소' 인쇄설비로 제조한 친환경 포장재를 라면 제품에 적용해 라면 업계 내 '친환경' 패키징을 선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제과업계는 플렉소 방식을 활용했지만, 라면업계는 이를 처음 적용해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뚜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제품 용기와 포장재를 생산하는 식품 포장재 전문 기업 풍림P&P를 통해 라면 등에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2022년 6월부터 △진라면 매운맛·순한맛(봉지라면·사진) △케첩 △마요네스 등 총 10개 품목의 낱개 속포장지를 플렉소 인쇄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추후 라면류 등 외포장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녹색인쇄'라 불리는 플렉소는 기존 유성잉크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와 달리 안전성 높은 친환경 수성잉크를 사용하고, 양각 인쇄로 기존 대비 잉크 사용량을 30% 이상 절약해 연간 최대 약 1600톤의 잉크와 유해화학물 유기용제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과 다른 건조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0% 절감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오뚜기는 진라면 봉지면 멀티 포장재를 기존 복합재질에서 단일재질로 변경해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보통'에서 '우수'로 향상시켰다.

남주현 기자 jooh@

"한우농가 살려라"… 정부·유통업계 소비촉진 한뜻

농식품부 "수출 200톤으로 확대"
롯데百, 축산 전 품목 40% 할인
현대그린푸드 브랜드 '그리팅'
한우 활용 건강식 신메뉴 선봬

정부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우 소비 활성화에 나서자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한우 도매가격은 큰 폭으로 내렸으나 소비자 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한우 소비 끌어 올리기에 정부와 업계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한우 수출 물량을 200톤까지 늘리고 한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농협과 연중 한우 할인 행사도 마련해 소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내림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예측하며 장기화할 경우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할 것을 우려한다. 실제 한우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내렸지만 소비자가격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11~20일 서울·경기 지역 82개 매장(40개 대형유통업체·42개 식육판매장)에서 한우 등급·부위별(100g) 가격조사를 한 결과 등심 도매가격은 평균 5447원으로 전년 동기(7129원) 대비 23.6% 하락했다. 안심(-22.0%)과 국거리(-21.8%)도 20% 이상 떨어졌다.

반면 한우 등심 평균 소비자가격은 대형유통업체 1만500원, 식육판매장 9842원으로 각각 16.4%, 8.7% 내리는 데 그쳤다. 안심의 경우 대형유통업체 평균 소비자가격은 1만6735원으로 2.4% 내렸고 식육판매장 평균 소비자가격은 1만6660원으로 오히려 35.6% 올랐다.

유통업계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판매와 신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17일 단 하루 전 점포에서 축산 상품군 전 품목을 40% 할인 판매하는 '미트 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본점 축산 매장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축산 상품군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한우 판매 활성화를 통해 한우 가격 급락으로 힘들어하는 한우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롯데백화점은 우대갈비, 티본, 토마호크, 샤또브리앙 등 다양한 스테이크 부위를 엄선한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비롯해 한우의 가장 높은 등급인 '1++' 등급의 다양한 부위로 구성된 '프레스티지 No.9' 상품도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3월 1일까지 한 달간 1등급 한우 가격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웹사이트에 고지된 2월 평균 소비자 가격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이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2~13일 한우 국거리·불고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0% 신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비 촉진을 통해 한우 농가의 시세 약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례적인 한 달 동일 가격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한우 농가를 지원한다.

현대그린푸드는 ESG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한우 정육 매입을 통해 물량 해소에 기여하고, 한우자조금은 수입육을 한우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한우 소비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체 급식 사업장에 한우 특식 메뉴 추가 개발을 비롯해 한우를 활용한 현대그린푸드의 건강식 브랜드 '그리팅'의 신상품도 선보인다. 또한,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한우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또한 검토 중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갑작스런 야근·출장 때도 ‘아이돌봄’ 걱정 마세요”

여가부, 서비스 고도화 나서

맞벌이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신청 뒤 대기 기간 ‘평균 24일’
자격증 도입·통합 플랫폼 구축
인력 조회·신청·서비스 매칭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교육·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아이돌봄사(가칭)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관련 인력 조회, 신청, 서비스 매칭 등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아이돌보미 신청 시 평균 대기 기간은 24일로 조사됐고,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갖은 브리핑에 “현재 2만6000명의 아이돌보미가 9만8000명의 영유아·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대기가 25~30%인 만큼 그 수가 부족한 건 분명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한다. 여기엔 △표준화된 통합교육과정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관리 전담기구 운영 △결격사유 확인 △돌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

통합교육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 범위도 기존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부모의 갑작스런 야근이나 출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등하원 등 2시간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단시간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하는 형태다.

정부는 고도화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회, 신청, 매칭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어제 집무실에서 플랫폼을 시연해봤다”면서 “AI를 활용하면 그간 잘 안됐던 매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가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 (가칭) 등의 명칭 변경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돌보미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현재 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등록제를 통해 누구든 시설, 인력, 서비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꽃 기자 pgot@

교신저자 역할 못한 중앙대 교수 법원 “연구윤리 위반 판정 타당”

논문 표절 인지 못한 책임 인정
학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표절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연구비 지원 혜택 등에서 배제된 중앙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A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연구윤리 위반 판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는 2007년 12월 B 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교신저자로 등재됐다. 교신저자란 연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개 전임교수들이 맡는다. 하지만 B 씨는 해당 논문을 쓰면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해 송사에 휘말려 5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중앙대 연구윤리위원회는 “A 교수가 직접 표절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으나 표절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신저자의 역할 수행이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 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통보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판정에 A 교수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배척했다. 결국 A 교수는 중앙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 측은 “중앙대가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이유로 원고의 교내연구비, 논문지원금 지급과 연구조교 및 연구년 신청을 모두 거절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학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고, 학계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수가 B 씨의 논문 작성 자료 획득 및 분석 등에 최소한의 기여만 했더라도 이와 같은 표절 사실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며 “A 교수는 논문 작성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 교수는 논문 작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관한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소송 과정에서도 교신저자의 역할 중 어떤 일을 했는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A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연구윤리 위반 판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A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송석주 기자 ssp@



얼음 속에서 봄 기다리는 낚싯배 절기상 우수를 사흘 앞둔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금광호수에 낚싯배들이 아직 녹지 않은 얼음 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물간 교대… 13곳 중 11곳 ‘사실상 미달’

정시 경쟁률 2대 1 ‘5년새 최저’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요 줄고
임용고시 합격률 떨어져 인기 뚝

대입 정시모집에서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학과의 경쟁률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수요가 줄고 임용고시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교대의 최대 장점으로 꼽혔던 ‘취업보장’ 효과가 줄어든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0대 1이다. 한국교원대(5.0대 1), 이화여대(3.9대 1)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경쟁률이 3대 1 미만으로 사실상 미달 수준이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2019학년도 정시 모집 때는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두 곳 있었으나 불과 4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1년 전과 비교해도 교대 경쟁률 하락세는 두드러진다. 13개 교대·초등교육과의 2022학년도 평균 정시 경쟁률은 2.4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7대 1을 넘었고,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교대는 한 곳뿐이었다.

수시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충원에 나선 인원도 올해 2023학년도에 502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다다. 지난해인 2022학년도(465명)보다도 8.0% 늘었다.

정시에 합격하고도 교대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정시 추가합격 인원은 지난해 기준 305명으로, 1년 전보다 14.7%나 늘어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예전에는 교대 정시 추가모집이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쟁률 3대 1 이하인 교대는 (학생 모집) 위험 수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대 신입생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보면 2021년 전국 10개 교대 신입생 중 232명이 자퇴·미등록 등으로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교대 신입생 가운데 6%가 학교를 떠난 것이다.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처럼 교대 인기가 떨어진 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 수요가 줄고 임용고시 합격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현경 기자 son89@

주말 전국에 비… 강원내륙·중부 ‘어는 비’

일요일 오후부터 ‘반짝 추위’

주말인 18~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 등 중부 지방에서는 기온이 낮아 비가 얼어서 내리는 ‘어는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16일 기상청은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17일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다가 주말 남부지방에 저기압이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토요일인 18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다음날까지 10~40㎜ 정도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18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남부내륙 일부지역에서는 ‘어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어는 비는 ‘온도는 영하이지만 물방울로 내리는 비’로 영하의 지면에 닿으면 바로 얼어붙어 살얼음을 만든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주말나들이 나서는 분들이나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어는 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요일인 19일에는 전날 눈을 뿌린 저기압 뒤편과 중국 북부지방에서 세력을 넓히는 고기압 사이 고도 5㎞ 대기 상층으로 북쪽에서 영하 30도 이하 찬 공기가 내려와 듬성듬성 구름대를 만들겠다. 이에 새벽과 오전 사이 중부내륙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다.

찬 공기 남하로 19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까지 기온이 하강하며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다. 이후 기온이 상승해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박은평 기자 pepe@

뉴진스·이석훈·노주현…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아이들 그룹 뉴진스 등 10개 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 홍보대사 위촉은 2년만이다.

새로 위촉된 서울시 홍보대사는 뉴진스 외에 방송인 션, 아나운서 오상진-김소영 부부, 배우 노주현·길용우, 가수 이석훈, 개그맨 김용명, 증권 펀드매니저 출신 유튜버 슈카월드, 인플루언스 틱토커 온오빠, 정신과 의사 형제 양브로(양재진-양재웅)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보대사들에게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만드는 여정에 동행하며, 서울시의 매력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 시장은 1998년부터 홍보대사로 활약해온 배우 최불암을 비롯해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한국화가 김현정, 인기 캐릭터 핑크퐁·아기상어 등 그동안 서울시 홍보에 앞장선 우수 활동 홍보대사들에게 감사패도 수여했다.

박은평 기자 pepe@

금융·부동산 베테랑 40人 원팀… 도산위기 '원스톱' 지원

혁신 로펌 열전

③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변호사들이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로펌 로고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호·최관수·신영수·최진석·김철만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한) 율촌

금융시장 경색에 부실 리스크↑
신탁·도산 등 신속대응 TF 발족

'3100억' 장안PF 정상화 물꼬 등
위기기업 전문 법률 자문 지원

"국내 부동산 신탁사 60%가 고객"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 지하 1층~지상 26층 4개 동에 총 1595가구를 짓는 공동주택 사업장이 지난해 7월 공매로 나왔다. 3100억 원 규모의 화성 장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따낸 시공사는 두 달 전인 5월까지만 해도 토목공사를 진행했고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해 2월로 예정됐던 분양이 지연되면서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전체 사업이 발목을 잡히며 공매로 넘어갔다.

1차 공매 시도에 대한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황에서 다급해진 신탁회사와 대리금융기관은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문을 두드렸다. 율촌은 대주단과 신탁사를 자문, 공매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시행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가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후속으로 들어온 2차·3차 가처분을 마저 방어해냈다.

나아가 율촌은 사업 정상화 방안까지 제안했다. 결국 책임준공 불이행시 채무인수 확약을 제공한 시공사가 신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함으로써 대주단은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었다.

금융시장이 경색되며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해 흑자 도산할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세부적·전문적인 자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율촌은 지난해 11월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율촌의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부동산 신탁사를 위한 자문 및 쟁송 외에 △한일건설 '스토킹 호스(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인수계약)' 방식 인수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부실채권(NPL) 매각 △한국콜마의 회생기업 비알엔사이언스 합병(M&A)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무조정, 출자전환, 기타 구조조정 △현대상선(현 HMM) 워크아웃 등 굵직한 케이스를 해결했다.

◇20년 이상 금융·파산 경력자 배치… '융합 법률서비스' 고도화= 김철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2015년께 이래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을 다수 출시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에서 중요한 신용보강자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한 시공사 부실화로 부동산 신탁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나 PF 대주에게 미상환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사례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다 7년 전 율촌에 합류한 도산·회생 전문가이자 산증인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아·해태·한라 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엔 삼선로직스, 대한해운 등 해운사 구조조정에 참여했다. 최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2020년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채권자 자문 등을 수행했다.

화성장안 PF 정상화 안을 제시한 최진석(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건설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를 생각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간, 시행사와 대주단간 분쟁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때 최대 채권자인 미국 씨티뱅크는 물론 고려개발 워크아웃, 쌍용건설 구조조정 매물 매각을 자문한 부동산 전문가다.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금융 △부동산 △신탁 △도산 분야로 나뉜다. 증권감독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공시·영업감독 등에서 일하고 증권거래법, 자산유동화법 등의 제·개정을 작업한 유석호 고문과 IBK기업은행에서 26년간 재직하며 은행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도한 이태호 전문위원 등 4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원스톱' 융합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신탁사 3분의 2 이상이 율촌 클라이언트"=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부문 부문장으로 파이낸스, 보험, 증권·은행, 신탁, 금융 규제·인허가 등 경력이 20년 넘는 베테랑 신영수(26기) 변호사와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경영법무실장을 포함해 20년 이상 파이낸스 경력을 쌓아온 김규식(25기) 변호사가 김철만 변호사와 함께 최고참 3인방이다.

'우리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KW-8호' 펀드 소송과 국민은행 오토론 대출 소송 등을 이끈 이희중(30기) 변호사,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 대표를 역임한 최춘구(31기) 변호사, 금감원에서 16년 넘게 근속하며 신탁·자본시장 조사를 두루 경험하고 여신 전문·은행 검사팀장 등을 섭렵한 김태연(33기) 변호사가 포진했다.

롯데물산의 롯데월드타워 지분 인수, 이지스자산운용의 미국 아마존 물류시설 인수 건 등을 법률 대리한 최진석 변호사가 부동산 파트 주축이다. 부동산 신탁에서는 부동산 개발·신탁업 관련 풍부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율촌의 부동산신탁팀장 김남호(31기) 변호사가 동참했다. 여기에 금감원 은행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에서 은행·부동산신탁·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실적과 경험을 축적한 최관수(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가세했다. 도산 부문에는 1994년 국민은행에 입행해 기업금융을 맡아 2008년부터 10년간 기업회생과 워크아웃 등 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졌던 손갑수 전문위원을 배치했다.

현대건설·포스코건설·디엘이앤씨 등 다수 건설사와 부동산전업신탁사를 위해 부동산 개발·건설 자문 및 쟁송을 도맡은 김남호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신탁사 14곳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율촌 클라이언트"라고 자부했다. 그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리아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 많은 부동산 신탁사를 대신해 각종 신탁사업 자문·쟁송을 담당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홍인석 기자 mystic@

율촌 부실자산TF 주요 구성원

-최진석 (44·사법연수원 34기)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강사

-김철만 (54·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Milbank LLP International lawyer

-신영수 (56·사법연수원 26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위원회 공시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위원

-김남호 (49·사법연수원 31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 (46·변호사시험 1회)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 경영자 正道 걸어야"

신영수 기업법무·금융 부문장

"기업 위기, 횡령·배임 연결 우려
법률 권리·의무 명확히 파악해야
부실자산 TF, 실무·전문성 갖춰
이해당사자 문제 신속해결 자신"



"위기에 몰릴수록 경영자로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방법을 쓰지만 그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배임과 같은 형사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조언을 충분히 듣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신영수(사법연수원 26기·사진)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이 갖는 법률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 발생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법률상 근거 없이 피상적 상식으로 대응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부문 부문장으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보철강 법정관리, 대우그룹 워크아웃, 구조조정, 인수·합병(M&A)에 관여한 인물이다.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PF는 물론 신탁·자산유동화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다. 대한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에 따른 대응 역시 그의 작품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기존 부채 상환, 추가 차입 내지 대환을 예정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정상적인 자금집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업 회생절차 및 회생절차 내에서의 자금 조달과 M&A 방안을 묻는 질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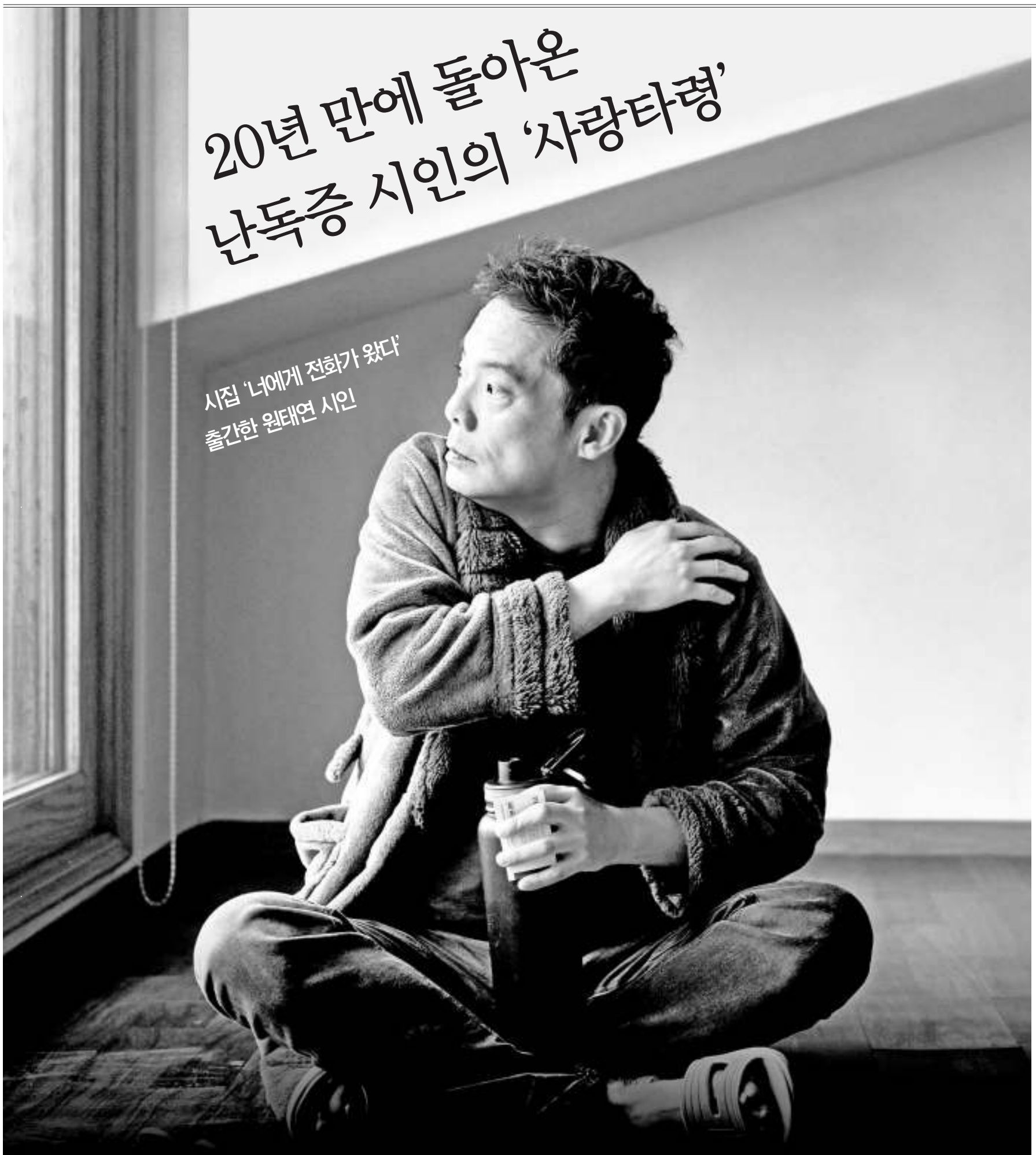
신디케이션(집단대출) 혹은 단독으로 PF 금융에 참여한 금융기관들 가운데 이미 체결된 금융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담보 상태에 따른 상황별 대처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서류화된 상세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PF 사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개발, 금융 규제, 기업 회생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있는데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이러한 법률 이슈와 실무에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각 이해당사자가 직면한 문제점,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기에 입체적인 자문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원 팀'을 이루고 있다. 각 사건별로 당사자 이해관계가 얽히고 금융감독 당국까지 관여할 수 있어 일반 기업 자문 변호사, 부동산 자문 변호사, 금융 자문 변호사, 부동산·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경매·신탁공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기업 회생·파산을 다루는 변호사, 금융 규제에 관한 자문 변호사, 금융기관 출신 전문위원, 감독당국 출신 고문 등으로 팀을 꾸려 어떤 이슈라도 대응할 수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홍인석 기자 mystic@

20년 만에 돌아온 난독증 시인의 '사랑타령'



시집 '너에게 전화가 왔다' 출간한 원태연 시인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등 말랑말랑한 구절로 1990년대 청춘들을 사로잡은 원태연 시인. 다시 독자들을 만나고자 펜을 들었지만 시가 너무 써지지 않아 '별짓' 다했다. 잠을 설치고, 스스로에게 욕을 내뱉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 머리로 천장도 뚫었다. 20년 만의 새 시집 '너에게 전화가 왔다'는 고뇌의 시간만큼 솔직한 사랑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원태연 시인의 집에 들어서면 오른편에 높고 좁은 계단이 있다. 뒤뚱뒤뚱 계단을 오르면 약 1m 높이의 어둑한 다락방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천장이 낮아. 이거 타고 와요"라며 바퀴 달린 작은 의자를 데구루루 굴려 보낸다. 아, 예사롭지 않다.

날것의 미학

원태연이란 이름을 세상에 알린 첫 시집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는 중학생 때부터 7년간 쓴 시를 엮은 것이다. 공부는 못했지만 매일 뭔가를 썼다. 오늘의 나는 볼품없지만, 시는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작은 출판사에서 매절계약(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은 모두 독점하는)으로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다.

150만 부가 팔렸다지만 인세는 없었다. 두 번째 시집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후 낸 시집들은 출판사 대표의 야반도주 등으로 인세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는 정확히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른다.

"시집을 많이 팔았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고, 술자리를 같이하려 했지. 버스를 열 번 타면 한두 번 정도는 누가 옆에서 내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어릴 땐 천재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교만했어요. 가진 걸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너에게 전화가 왔다'는 과거의 나를 바닥까지 반성하면서 작업했어요. 자전거를 타다 체인이 빠졌음에도 멈출 수 없는 기분이었죠. 시한테 많이 혼났어."

새 시집 속 '버퍼링'은 9개월 동안 70번 넘게 수정한 시다. 어떻게 적어봐도 도대체 매력을 살릴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퇴고한 원고를 모으면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란다. 그러다 우연히 자판을 잘못 눌러 '끊어진다/마음/이'라는 일곱 글자만 남았다.



9개월 동안 책 한권만큼 고친 '버퍼링'
詩한테 혼쭐나며 교만했던 과거 반성
뒤늦게 알게 된 '난독증' 오히려 수혜
최근엔 원태연만의 단어사전 집필 중

안녕하세요, 난독증 겪는 시인입니다

그는 시인이자 작사가이자 영화감독이다. 1995년 가수 김현철의 '왜 그래'를 시작으로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그 여자'와 '그 남자', 개그맨 박명수의 청혼곡 '바보에게 바보가', 허각 '나를 잊지 말아요',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등의 노랫말을 썼다. 권상우, 이보영 주연의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도 제작했다.

장르를 불문하고 사랑과 이별의 번민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난독 증세다.

"40살이 넘어 난독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현재 한국난독증협회 홍보대사기도 해요. 난독증은 글자를 '아예 못 읽는'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증상은 제각기 달라요. 난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시도 쓰고 작사도 하고 다 해요. 오히려 난독증의 수혜자야.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남들에게 낯선 단어가 익숙하게 떠오를 때가 있죠. 덕분에 훨씬 표현에 자유로워요. 이번 시집, 후회할 확률 27% 미만. 10%라고 하려 했는데 건방져 보일까 봐."

멋있는 작가와 독자

요즘은 원태연의 해석으로 다시 풀어쓴 '단어 사전'을 쓰고 있다. 가제는 '원태연의 오리지널'. 그의 눈에 비친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이방인'의 경우 국어사전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지만, '나를 위해 울어줄 이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라 썼다. 언제쯤 책을 볼 수 있겠냐는 질문에 잠깐 침묵하던 그는 "출판사에서 보내셨어?"라며 볼멘소리를 던졌다.

"열다섯 살 때 장래희망 난에 '멋있는 남자'라고 썼었어요. '원태연이, 멋있는 남자가 직업이야? 뭐 먹고 살라고?'라는 담임선생님의 한마디에 우스운 놈으로 여겨진 일이 있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고맙게도 독자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내 시를 칭찬하고, 공감해주죠. 책이 김밥천국 소고기김밥보다 비쌀텐데. 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은 기분도 들고요. 잠시 한눈팔았지만 돌아올 곳은 결국 '시'였을지도 몰라요."

인터뷰가 끝나고 현관 밖까지 나와 "재밌었다"며 씩 웃는 그를 보곤 생각했다. '멋있는 남자'라는 꿈, 어쩌면 이루었을지도.

글/문혜진 기자 hjmoon@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외로움을 사랑으로 바꿀 책

왜 아무도 고슴도치를 쓰다듬어 주지 않을까

안드레이 쿠르코프 저/송민영 옮김/템북



"고슴도치는 주인이 쓰다듬어주자 행복해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말을 보며 자신을 아무도 쓰다듬어주지 않는 것에 슬퍼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성향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동물들을 보며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작은 회색 쥐와 대화하면서 용기와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에게 좋은 것이라 해서 나에게도 반드시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선 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고슴도치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생각과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고, 타인을 편견 없이 대하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콧 저/김지은 옮김/책읽는곰



"언어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발표 시간에 비웃음을 사곤 친구들에게 상처를 입어요. 그런 아이를 아빠는 강가에 데려가 가만히 안으며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라고 속삭입니다. 강물은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서지면서 더듬더듬 흘러가죠. 아이는 자신의 내면에도 물살이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을 둘러싼 낱말들을 꺼내기 어려울 때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고 되뇌어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죠. 이 작품을 계속 읽는 이유를 설명할 순 없지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같아요."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 저/채숙향 옮김/지식여행



"저자는 98세에 데뷔한 일본 시인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순수한 감성으로 표현하죠. 인생 선배로서 다정하게 건네는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줘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삶을 열정적이고 아름답게 꾸리는 방식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의 에세이집 '약해지지 마'는 출간되자마자 일본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츠지 히토나리 저/양윤옥 옮김/북하우스



"'냉정과 열정사이'의 저자로 잘 알려진 츠지 히토나리는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감성을 구사합니다. 사랑에 대한 남녀의 미묘한 심리를 잘 전달하죠. '사랑을 주세요'는 세상을 버리려는 리리카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한부 모토의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풀어냈어요. 둘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진솔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모토의 편지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을 이겨낼 원동력과, 진정한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동성제약

프리미엄 토탈 헤어 솔루션 –

오마샤리프

시간이 흐를수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두피와 모발.
오마샤리프가 3040을 위한 프리미엄 토탈 헤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동성제약의 65년 두피, 모발 관리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전문 살롱에서 케어 받은 듯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버블앤비 포밍 헤어컬러 : 거품 제형 염색약이 모발에 강력하게 밀착되어 선명한 염색을 도와줍니다.
스칼프 커버 스프레이 : 대나무 숯가루가 함유된 순간 증모제(흑채)로, 비어 있는 모발을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커버합니다.
새치 헤어 틴트 : 특허받은 브러시가 넓은 부위의 새치를 빠르게 커버하며, 강한 비나 땀에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허니 오일 버블 샴푸 : 꿀 추출물을 함유해 건조한 두피와 모발을 촉촉하게 가꿔주며, 풍성하고 쫀쫀한 거품력의 보습 샴푸입니다.
헤어 코팅 팩 : 단백질, 식물성 성분이 모발에 영양감을 전달하여 살롱에서 시술 받은 듯 윤기를 더해주는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Omar Sharif
PARIS

▼헤어 코팅 팩
(250ml / 18,000원)

◀허니 오일 버블 샴푸
(330g / 23,000원)



▲버블앤비
(1제 30ml, 2제 50ml / 13,000원)

▲새치 헤어 틴트
(15ml / 15,000원)

▲스칼프 커버 스프레이
(60g / 19,000원)

| 소비자 상담 전화 : 080-020-2500 | www.dseshop.co.kr | www.rannce.co.kr

"토큰증권 투자자,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신년 기자간담회

예탁금 안전하게 보관 관리…불의의 사고 시 반환절차 진행
단기자금 안정 찾아가지만 비우량물 경색 당분간 이어질 듯

"토큰증권(STO)도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를 할 예정이다."

윤창호〈사진〉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증권금융의 역할과 올해 주요 경영 방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윤 사장 취임 후 첫 대면 간담회이기도 하다.

윤 사장은 "현재 뮤직카우 등 일부 조각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돼 안전하게 보관·관리 중"이라며 "향후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시, 증권금융은 토큰증권의 투자자 예탁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주식투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큰증권의 투자자금이 증권금융에 예치된다"며 "이후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날 때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토큰증권 시장이 열리면 증권금융이 증권사로부터 받은 토큰증권 예탁금을 운용하고, 향후 파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의 예치 자금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식시장의 예탁금과 투자자 보호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이날 윤 사장은 올해 증권금융의 주요 목표도 설명했다. 그가 내세운 세 가지 경영 방향은 △시장안정 기여 △증권업계와 상생 △디지털 변화 대응이다. 특히 그는 "시장위기 시 여유 재원을 활용해 증권업권에 유동성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 가동한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PF-ABCP 매입프로그램, 증시안정펀드 출자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권금융은 단기금융시장 자금경색에 대응해 지난해 7월 이후 증권사에 1조8000억 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한편 윤 사장은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그는 단기금융시장 자금시장 경색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비우량물의 경색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윤 사장은 "최근에는 예금증서(CD)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난 연말부터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비우량 부문이나 부동산금융 등 취약 부문은 금리 내림세가 제한적이라 우량과 비우량물의 차별화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사진제공 한국증권금융

"뉴스 생산, 독자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본지 독자위원회 올해 첫 정례회의

스마트폰 중심 미디어 환경 따른 새로운 전략 필요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희망 메시지 담는 보도 제안

"이투데이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본지 독자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 사옥 8층 회의실에서 2023년 첫 정례 회의를 열고 차별화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뉴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언론도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는 독자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장과 신경철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본부장, 이준희 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상무),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 송병기 유통바이오부장이 함께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이투데이만의 차별화 전략 △디지털 분야 강화 등이 다뤄졌다. 김경식 위원장은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고, 종이신문을 잘 안 본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시대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소라 위원은 "접근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내용 면에서는 좋은데, 온라인 노출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층 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경철 위원은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고 심층보도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희 위원은 "미담까지는 아니어도 밝은 톤의 메시지를 담은 기사가 너무 적다"면서 희망의 메시지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김덕헌 대표이사는 "올해 본지는 '투자 뉴스에 강한 매체'로서의 색깔을 더 내고자 한다. 주식·부동산·가상자산·외환·채권 외에 아트테크 등 새로운 분야의 정보도 제공하는 매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4월 독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1기 독자위원회를 꾸렸다. 독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경식 소장을 비롯해 박상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실장, 신경철 본부장, 이준석 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 상무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독자 의견을 듣기 위해 양소라 변호사, 이주영 한국YWCA연합회 부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2기 독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경식 본지 독자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 본사에서 열린 올해 첫 독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철·이준희 위원, 김 위원장, 양소라 위원.

조현호 기자 hyunho@

최종문 前 외교2차관·김용태 前 금감원 국장 등 영입

법무법인 화우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 강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최종문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화우의 고문으로 합류했다.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전문위원으로 영입됐다.

최 신임 고문은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자이슈 및 경제안보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화우의 기업자문그룹에 소속돼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각종 현안에 대해 통합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 신임 고문은 언론계에 몸담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정부 등을 상대로 한 기업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에 합류한다.

김 신임 고문은 화우 금융그룹에 소속돼 금감원 관련 및 디지털 금융 자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전 신임 전문위원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이명수 화우 경영 담당 변호사는 "새로운 고문과 전문위원들의 합류로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분야의 컨설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화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왼쪽부터 최종문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노동진 前 진해수협 조합장
26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



노동진〈사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이 16일 차기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수협은 이날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열린 제2차 임시총회에서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을 제26대 수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진 신임 수협회장은 1954년생으로 창신대학(현 창신대)을 졸업하고 진해수협 비상임이사(4선) 및 21~22대 조합장, 수협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노동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이란 기치를 내걸었다. 또 △활력있는 어촌 건설을 위한 어촌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어업인·회원조합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바다환경보전 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한 바다환경 보전 체계적 구축 △세제·제도개선을 통한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 당선인은 내달 27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하나카드 노사 '상생 협약식'



하나카드 노사는 이호성〈사진 왼쪽〉 하나카드 대표이사와 정종우〈오른쪽〉 노조위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서울 을지로 하나카드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노사상생 협약식에서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해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것은 물론, 하나금융그룹의 관계사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노사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회사와 직원의 상생은 물론,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관계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금융업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사진제공 하나카드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정보통신예산과장 민경신

◆**은행연합회** ◇부서장 △여신금융부장 박영상 △디지털혁신부장 이종혁 △지속가능경영부장 정해민 △소비자보호부장 박혜정 △총무부장 윤현진 △홍보부장 김윤진 △감사실장 박진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승진 △미래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엄근용 이광표

◆**한국신용정보원** ◇임원 선임 △전무 김평섭 △상무 이동렬 △상무 방태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보 △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 이성도 △〃 전략모금본부장 심정미 △〃 나눔사업본부장 이정윤 △〃 나눔문화연구소장 김누리 △부산지회 사무처장 박선욱 △대구지회 〃 강주현 △경기지회 〃 김효진 △경남지회 〃 박은덕 △제주지회 〃 박은희 △경기북부사업본부장 노진선

부음

▲**정진석** 씨 별세, **정승용**(OCI 군산공장 공장장) 씨 부친상 = 16일, 동군산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8일, 063-441-4444

▲**최노공** 씨 별세, **정창배**(전 중앙경찰학교장) 씨 모친상 = 15일, 경북 구미 차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054-452-1919

▲**신치구**(전 국방부 차관.예비역 육군중장) 씨 별세, **신정환**(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기수**(사업)·**기랑**·**기선** 씨 부친상, **방대춘**(수 이비인후과 원장)·**김병태**(예비역 육군 준장) 씨 장인상, **박채연**(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주이진** 씨 시부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장례미사 18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성당,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3410-3151

▲**이말순** 씨 별세, **전우용**(뉴스앤북 대표, 전 금강일보 사진부장) 씨 장모상 = 16일, 대구전문장례식장 103호, 발인 18일 오전 7시 20분, 053-965-7103

▲**백성윤** 씨 별세, **백종헌**(국민의힘 국회의원) 씨 부친상 = 16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MVG실, 발인 18일 오전 6시, 010-9894-8275

▲**박승윤** 씨 별세, **박원영**(Boranet 미국 본사 이사)·**난영**·**준식**(한국경제TV 광고마케팅2부장) 씨 부친상, **김승림**(위드컨설팅그룹 대표) 씨 장인상, **김유경**·**라경화** 씨 시부상 = 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2-2227-7500

▲**박종철**(전 광주 동구청장) 씨 별세, **박권수**(YS개발 회장)·**찬수**(선엔지니어링 상무)·**상호**(중소상공인뉴스 회장) 씨 부친상 = 16일, 광주 서구 매월동 VIP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한국인 명품 소비 세계 1등이 왜 부끄러운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소비자 자신은 나름대로 정당한 목적과 이성적 동기를 갖고 구매한다. 소중한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픈런' 하며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물어보라. 명품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수십 가지나 댈 것이다. 그러니 불법이 아니면 소비행위를 규범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요즘 뜬금없이 한국인의 유별난 명품 사랑이 외신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얼마 전 블룸버그는 한국이 명품 소비 1위 국가로 올랐다는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를 기사로 크게 다루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명품 옷과 가방을 구매한 금액이 168억 달러(약 21조 원)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고 한다.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는 325달러로 미국(280달러)과 중국(55달러)을 크게 앞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명품 소비 열풍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물질지향적 문화, 소셜미디어를 통한 과시욕과 모방심리 등을 거론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명품 소비가 급상승한 주된 이유로 주택 가격을 꼽았다. 지난 몇 년 동안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주택 소유자의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덕분에 명품을 비롯한 사치재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2021년도 한국 가계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명품 소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집값이 너무 올라 이를 살 수 없는 무주택자들도 주택을 포기하고 명품 구매에 가세해 열풍을 부채질했다고 덧붙였다.

집값이 올라 부유층뿐 아니라 서민층도 명품 구매에 열광한다는 블룸버그의 기사를 받아 국내 언론들은 고가 수입 명품을 구매하는 사치성 소비 풍조를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냈다. 대부분은 명품 소비와 행복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는 세계 1위이지만, 행복은 꼴찌 수준이라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요점은 명품 소비가 행복과 비례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와 해석은 '견강부회'에 속한다. 명품 소비와 행복도가 비례하는지를 알려면 명품 구매자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조사해 비구매자와 비교해야 한다. 1인당 명품 소비가 높다고 전 국민이 다 명품을 사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복이 명품 소비만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명품 소비가 물질적 풍요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행복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물질적 풍요를 측정하는 지표도 여럿이다. 명품 소비만 꼭 집어서 행복과 풍요를 논하는 것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명품 소비와 행복의 역비례 관계를 인정한다 쳐도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 명품 소비를 많이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는 논리이다. 행복도가 낮으면 명품 소비로 보상받으려는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 역시 '인과관계 역전의 오류'이다.

이런 오류를 외국에 적용해 살펴보자. 가령, 미국의 경우 마약 소비와 총기 사고율이 높은데 이를 명품 소비와 연결해 해석하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은 명품 소비가 적어 마약을 많이 하고 총기 사고가 빈번하다고 주장하면 타당한가.

우리는 무엇을 해도 세계 1등을 열망한다. 비록 명품 소비이지만 그토록 원하는 세계 1등의 위상을 성취했는데 왜 그리 깎아내리려 할까.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도 없던 동방의 분단국가가 부자나라들을 제치고 사치품 소비 1위가 될 만큼 부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왜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인식에 명품 소비를 사치와 허영으로 간주하는 도덕적 관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근검절약하던 시대에 유행하던 '저축은 미덕, 소비는 악덕'이라는 가치관도 남아 있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와 명품 소비 열풍을 사회 병리 현상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작용한다. 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며칠씩 매장에 줄 서서 명품 구매에 목을 매는 행동은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로 번 불로소득을 사치품 구매에 쏟아붓는 호구 같은 모습이 외국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창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명품 구매 행태가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외국과 다른 우리 국민의 명품 소비를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소비자 자신은 나름대로 정당한 목적과 이성적 동기를 갖고 구매한다. 소중한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픈런' 하며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물어보라. 명품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수십 가지나 댈 것이다. 그러니 불법이 아니면 소비행위를 규범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소비자일 뿐이며, 명품 구매 열풍은 한국적 소비문화일 따름이다.

예술동네 엿보기

진격의 NFT, 퐁피두센터 입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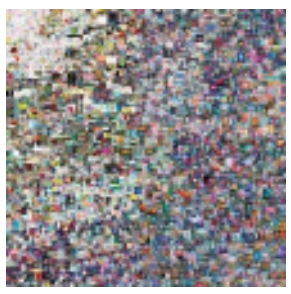
이 상 미
이상아트 대표
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를 통해 블록체인과 예술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는 새로운 전시회 계획을 발표했다. NFT는 암호화된 정보 저장기술로서 복제의 불가능과 정보 보호의 안정성으로 미술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디지털 파일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아트, 온체인아트란 이름으로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디지털아트 창작의 재현성 문제에 대한 이상적인 해법으로 자리를 잡은 한편, 디지털 예술가들이 이제 스스로 갤러리나 아트페어와 같은 미술 유통의 중개자가 될 수 있다는 문화 현상까지도 만들었다.

전세계 작가 13명, 18개 프로젝트 전시

유럽의 미술관, 박물관들도 NFT아트 수집과 전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그중 퐁피두센터의 올해 NFT 전시 기획이 눈길을 끌었다. 퐁피두센터가 크립토펑크 등 13명의 전 세계 작가들과 18개의 NFT 프로젝트를 전시한다고 10일 알렸다. 선정된 작가들 중에는 프레드 포레스트, 클로드 클로스키를 포함하여 중국, 프랑스의 작가와 크립토펑크의 제작사인 유가랩스도 포함돼 있다. NFT 기업 유가랩스는 유명 NFT시리즈 BAYC(Bored Ape Yacht Club)의 개발사이다. 전 세계 미술관에 크립토펑크 기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퐁피두센터에 크립토펑크 2점을 기증했다. 해당 미술관은 블록체인 결합 예술을 위한 상설 전시장을 열고, 유명 NFT 컬렉션을 전시할 예정이다.

퐁피두센터는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조르주 퐁피두의 이름을 딴 미술관으로, 1977년에 개관한 유럽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관이다. 연간 500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현대미술의 본거지로 칸딘스키, 마티스, 샤갈, 뒤샹 등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건축가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한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미술관은 창의적인 예술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는 전문 미술교육 공간이기도 하다. 설립 이후부터 젊은 세대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해왔으며, 그 핵심가치에 따라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NFT 전시도 이런 행보에 걸맞다.



크리스티즈 경매에서 785억 원에 낙찰된 비플의 NFT 작품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

몰리는 자본…"예술성 결여" 비판도

NFT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는 엄청난 자본에도 불구하고 예술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NFT아트를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미술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조롱하듯, 세계 최대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즈 경매에서 비플의 NFT 작품(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이 785억 원에 낙찰되는가 하면, 크립토펑크의 픽셀로 이뤄진 NFT 작품은 130억 원에 거래되었다.

퐁피두센터가 자체 컬렉션 NFT를 처음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적 표현 방식과 해당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 대한 미술관의 옹호적인 입장을 확고히 밝히는 셈이다. 또한 유럽 최대 현대 미술관인 퐁피두센터에서의 이번 전시는 NFT가 단순한 디지털 수집품을 뛰어넘어 예술적 가치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퐁피두센터의 파격적인 이번 NFT 전시회를 통해 대중들이 새로운 문화 현상에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NFT가 디지털 아트의 한 장르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지, 논쟁의 중심에 선 NFT아트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지, 이번 전시회가 어떤 파급을 던져줄지 사뭇 기대된다.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노 상 우 / 유통바이오부

"감염병 대응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경제성을 따져가며 특수부대를 운영합니까?"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보건안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하지만, 일상회복에 접어든 현재 그 중요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국가 보건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축소와 예산 삭감 때문이다. 당초 총 1050병상으로 신축·이전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760병상으로 축소하고 예산도 줄였다. 근거는 '낮은 병상 이용률'과 경제성 논리였다. 국립중앙의료원 구성원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결과가 경제성 논리의 '병상 축소'냐며 허탈해한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유행 시기마다 국가는 의료비상사태를 발령한다.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국가병원 체계 개편, 감염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실천은 없었다. 감염병 유행 이후 다음 감염병에 대비하자며 백서를 만들었지만, 무의미했다. 3년에 걸친 코로나 사태를 겪고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제약 주권 없이는 제약 강국도 없다.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가 제약주권 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달라"라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정부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핵심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변화는 많지 않다. 특히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공약으로 내세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조속한 설립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 '보건안보'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책이다. 다른 유형의 감염병은 언제든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다.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언급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정부를 기대한다. nswreal@

이투데이, 말투데이

☆ 마이클 조던 명언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것이 정확히 내가 성공한 이유다."

'농구황제'로 불리는 미국 NBA 농구선수. 지금은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다. 그는 프로선수로 활동하는 13년간 시카고 불스에 6개의 NBA 챔피언 타이틀을 안겼고, 득점왕 10회와 NBA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5회 등 역사적 기록들을 남겼다. 그가 13시즌 동안 기록한 평균 득점 31.5점도 사상 최고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63~

☆ 고사성어 / 필경(筆耕)

'붓으로 밭을 갈다'라는 말이다. 옛 문인들은 붓을 놀려 글을 쓰거나 저술하는 일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출전 예문유취(藝文類聚). 동한 시대 반초(班超)는 다른 사람을 위해 책을 베껴주는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았다. 그가 문득 붓을 내던지며 탄식한 말에서 유래했다.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 공명을 떨쳐야 하거늘 어찌 이런 별 볼 일 없는 문자놀음 같은 필경이나 하고 있는가." 이 일화는 훗날 책을 베껴 생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정착했다.

☆ 시사상식/리뷰슈머(reviewsumer)

review와 consumer의 합성어. 신제품을 남들보다 먼저 사용해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상품 평가 글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의 사용 후기나 개선점 등을 꼼꼼하게 평가한 글이 사람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품평이 기존의 제품 홍보문구보다 제품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줌에 따라 기업은 이 피드백을 제품 생산에 반영하는 등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출시 후에는 입소문 마케팅에 활용한다.

☆ 신조어 / 리셀테크

'리셀'과 '재테크'의 합성어. 명품이나 희귀한 제품을 사서 되팔아 돈을 버는 것을 뜻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덕헌 | 주필 이승현 | 편집국장 박성호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6701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44	부동산부	(02)799-2625	산업부	(02)799-2663
미래IT부	(02)799-2665	중소중견부	(02)799-2637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디지털뉴스부	(02)799-265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새로운 도전 맞은 개인정보 보호

고 학 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문제 있는 AI 결과물 어떻게 규율할지 고민"

"기술 영역은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기술을 유용하게 쓸 것인지 접근해야 하고, 개인정보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다. 아날로그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전제로 해서는 유용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9일 본지와 만나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면 마이데이터 스킴(scheme·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와 챗GPT를 포함한 AI 영역에 관한 것 등 두 영역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 AI 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AI 전문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영역에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단연 주목받고 있다"며 "경제 협의체인 G7과 같이, 장차 데이터7과 같은 국제적 데이터 협의체를 만들어 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챗GPT 열풍, AI의 일상화

학습 데이터 어떻게 쓰게 하나

기업 기술개발 환경은 어떻게

개인정보 포함 사회규범적 문제

기존 법으로 충분할지 등 검토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화

'정보주체 동의' 소극적 개념서

'전송요구권' 적극적 통제권으로

기업에도 비즈니스 기회 열려

법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할 듯

네이버·카카오·통신사도 기술개발

최근 챗GPT가 불러온 열풍에 AI의 일상화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사실은 요즘 정말 자나 깨나 고민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국가 차원에서 또는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각 정부 부처에서 데이터 관련, AI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다 고민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게 해줄지다"라고 짚었다.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고 위원장은 "챗GPT는 오픈AI가 시작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도움을 줘서 이 단계로 온 것이고,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사이에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직접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또는 통신사 등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거꾸로 데이터가 없고 자본력이나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회사들은 IT 영역에 끼어들기도 어렵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맥락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포함해 사회규범적으로 문제 있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충분할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관련된 영역이 위원회로서는 엄청난 도전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며 "중장기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예산 구축 AI 데이터 활용도 낮아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위원회는 챗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환경에서 우리가 더 익숙해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디지털 대전환을 하게 해주는 사회적, 제도적, 법적, 기술적 인프라 등 사회적 변화의 큰 흐름을 촉진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을 깔아주는 곳"이라며 "그쪽 영역을 공부하다가 왔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자신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활용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며 "큰 이유는 개인 정보 성격이 있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게 해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개인 정보가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구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데이터강국 진입 기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담당하는 총괄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기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라는 소극적 통제권을 '전송요구권'이라는 적극적 통제권으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IT 인프라, 공공·민간데이터 축적 수준 등에서 해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저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변화에 힘입어 더욱 빠르게 데이터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활성화되면 국민 개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진정한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체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들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통해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 산업 전반의 환경을 변화시켜 데이터 경제로의 진입을 촉진할 초석으로 기대한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개개인에게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게 해주는 출발점이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기술적,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지면 기업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열린다"며 "데이터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에서부터 지나온 과정 중 일종의 위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관련한 그림과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지 구상하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각 분야의 주무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해 정책을 고민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도입·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마이데이터가 분야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API 등)를 표준화하고, 국민이 개인정보 전송 요구, 활용이력 관리, 전송 중단 등을 직접 통제·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AI 측면서 한국 위상 높아

고 위원장은 "국제 정치·경제 주요국 협의체인 G7과 같이, 장차 데이터7과 같은 국제적 데이터 협의체를 만들어 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갔으면 한다"고 정책적 포부도 덧붙였다. 그는 "외국에 나가 보니 그들이 한국의 데이터, 개인정보 영역을 보는 시각이 국내에서 우리 위원회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데이터나 인공지능 영역은 좀 독특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논외로 보고,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는 단연 한국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조직 규모에 대해서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인력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제가 '고민한다'라고 하는 영역을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인원이나 역량이 굉장히 제약된다"고 호소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활용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과 다른 양상의 개인정보 침해 및 활용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위원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조직의 규모 등에 아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사 인력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 위원장은 "최근 메타에 대한 처분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이 꼼꼼한 곳은 결정문이 250페이지가량 되지만 우리 결정문은 50~60페이지 정도"라며 "(조사 인력이 늘어) 더 꼼꼼하게,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더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했다. 어제 언급은 다소 복잡하지만, 의미는 간명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등을 돌린 것이다. 고용부는 앞서 1일 노조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해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하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노조 334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꼽힌다. 정부는 노조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중요 과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어제 나온 자료를 들여다보면 걱정만 앞선다. 고용부 요구에 응해 제대로 회계자료를 제출한 조합은 120곳으로 36.7%에 그쳤다. 이 장관이 말한 '30%'보다는 많지만 3분의 2에 가까운 조합이 정부 요구를 전면 묵살하거나 사실상 회피한 결과이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노동개혁이 가능해질지 모를 국면이다.

양대 노총으로 통하는 한노총과 민노총은 2021년 기준으로 83.5%의 조합원을 확보한 거대 권력이다. 예산 규모도 각각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 금고에는 수많은 조합원 회비가 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의 보조금도 쌓인다.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국제적 관행도 그렇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회계감사자로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도 일정 기준 이상 규모의 노조에 대해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또한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중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 요구에 응하기보다 법적 공방과 정면충돌을 원하는 모양이다. 한노총은 어제 논평을 통해 '부당한 행정 개입'을 탓했다. 민노총도 앞서 구체적 자료 제공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회계자료의 외부 공개를 꺼리는 노조를 응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정부에 반발하기보다 노조 활동의 신뢰성을 높이는 첫 단추를 어찌 끼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 장관은 어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믿는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다.

그 역에 가고 싶다 1970~80년대 낭만의 성지 '백마역'

백마역은 1966년 4월 경의선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면서 1981년 배치간이역으로, 1993년엔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당시 역사는 130.18㎡ 규모의 벽돌조 슬라브 단층 건물로 소박하고 아담한 모습이었으나, 2006년 옛 백마역사 철거로 임시역사를 거쳐 2009년 수도권 경의선 전철을 위해 설립된 현재의 새로운 역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역명은 인근에 한국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백마부대가 주둔하여 붙여졌다는 설과 백석동, 마두동의 두 지명의 첫 글자를 따서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백석동은 남쪽에 자리한 도당산(도당굿을 지내는 산)에 커다란 하얀 돌이 있어 이름 붙여졌으며, 마두동은 정발산에서 내려다본 마을 모습이 마치 말의 머리가 누워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하여 '말머리'란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1970~1980년대 백마역은 젊은 청년들이 연인과 애틋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던 화사랑〈사진〉 등 데이트 명소로 이름이 높았다. 시와 음악, 낭만에 취해 철길을 따라 걷던 곳. 신촌역을 떠나는 경의선 열차 안에는 낭만의 성지 백마역을 찾는 젊은이들이 가득 했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막차를 놓치고는 발을 동동 구르는 연인들이 있었다.

옛 백마역 인근에 자리한 애니골은 풍동의 옛 지명 애현마을에서 유래되었다. 애현마을을 일컬어 애현골로 부르다가, 카페촌의 형성으로 데이트 명소가 되면서 애인골로 불렸으며, 이것이 애니골로 정착된 것이다. 오늘날 애니골은 경기도 지정 음식문화의 거리로 옛 통기타 가수들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카페와 다양한 레스토랑, 갤러리가 들어서며 삶의 낭만과 휴식을 찾는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내일의 지구에게 희망을 들려주는 기술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